



# 기나긴 대덕대 학내문제 갈등 봉합하나?

## 이창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공명정대로 대학문제 해결”



이창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1년여동안 학내 분규로 총장 공석이 라는 조유의 사태를 맞았던 대덕대학교가 새 총장 선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사진> 이사장은 16일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대덕대 신임총장을 겸직 이사 만장일치로 선출해준 이사회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언론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창원 이사장은 “중부권 명문 사학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덕대가 최근 몇 년 동안 뜻하지 않게 내홍을 겪는 가운데 1년 넘게 지속돼 온 총장 공석 문제를 해결한 만큼, 이제 신임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새롭게 도약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해 이창원 이사장은 “대덕대학 이사회가 1981년 대학 개교 이후 처음으로 총장 공모를 실시해 교직원, 교수협의회, 교직원회, 직원노동조합 등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심사의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며 “이사회 절반은 기존 이사들로, 나머지 절반은 관선 임시 이사들로 구성돼 있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하게 대학 문제를 해결해주시실 분이 라는 데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뜻을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창원 이사장은 “지난 3월 중순 관선이사 파견 이후 속도를 내며 6주 만에 이사장을 선출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신임 총장을 선출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2학기부터는 신임 총장이 대학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분명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학내 갈등 관계 속에서도 대학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준 이사회 한분 한분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사회 역할과 관련하여 이창원 이사장은 “대덕대는 물론 산하 중고교들이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것”이라며 “특히 대덕대 구성원들이 내홍의 어려움 가운데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돕겠다”고 밝혔다.

이창원 이사장은 “지역사회와 언론에 대덕대와 창성학원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대 이사회인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김상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14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이정복기자

## 국민 10명 중 8명 ‘입주할 의향 있어’

국토부, 서울·고양·화성 등에서 입주자 모집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성인(만 19세에서 59세) 1천명 대상으로 진행된 ‘행복주택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87.2%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주택에 입주(권)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79.3%였으며, 특히,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국민의 입주(권) 의향은 87.8%로 높았다.

아울러, 행복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작년말 조사결과(65.1%)보다 11.4%p 높아졌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 서비스’를 지난 4월 도입한 결과 일일 600여명씩 신청하여 100여일 만

에 신청인원이 7만명을 넘어섰다. 신청자의 現 거주지는 서울 2만 8000명, 경기도 2만명, 인천 4천명 등 수도권이 74%, 부산 3천명, 대구 2004명 등 지방이 26%이다.

입주희망지역은 서울 3만3000명, 경기도 1만6000명 등 수도권이 74%, 대구 3천명, 부산 2천명 등 지방이 26%이다.

신청자 연령은 20대가 3만4천명, 30대가 2만7천명으로 2030세대가 87%, 40대 이상이 13%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행복주택 입주(권) 서비스 신청자수가 연말이면 15만 명, '17년말이면 35만명 이상 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

황과 입주자적 자기전단 및 입주(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행복주택 블로그·행복주택 월간 조회건수가 작년 30만건에서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4월부터는 100만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올해 행복주택 1만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서울가좌 등에서 1600여호 모집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마천(3148호), 고양삼송(832호), 화성동탄2(608호), 충주첨단단지(295호)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아울러,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즐거운 보령 머드축제 개막 15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9회 보령 머드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온몸에 머드를 흠뻑 바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세종·경기·제주 국정시책수행 ‘최우수’

행정부,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발표

세종과 경기, 제주가 지난해 국정시책을 가장 잘 수행했다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특별·광역시세 세종이며 도는 경기와 제주라고 15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일년간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를 27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9개 분야 27개 시책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중증과제 등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 6개, 부산 4개, 대구·대전 3개, 인천 2개, 서울·광주 1개 등 순이다.

도에서는 경기와 제주가 각각 가 등급 6개를 받아 가장 많았으며 충북이 4개, 전남·경남이 각각 3개, 전북이 2개이며 강원·충남·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세종이 작년 대비 5개 늘어나 가장 많이 향상됐으며 제주도 작년 대비 가 등급이 4개 증가했다.

이번 평가는 27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83개 지표(196개 세부지표)에 대해 올해 1월~6월까지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9개 분야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2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시·도간 상호

증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을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행자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해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국가 주요시책을 지방행정 일선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효율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대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건립 가시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도시관리계획 지정 등 건립 속도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해 10월 8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덕구 상서동 일원에 위치한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이하 신뢰성센터)의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신뢰성센터 건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었던 건립 부지를 지난해 12월에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지정하는 등 신뢰성센터의 순조로운 건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일찍이 완료했다.

시는 국방기술품질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관 2명을 파견하여 신뢰성센터 건립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도 올해 1월 신뢰성센터 건립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유재명 대전국방벤처센터장을 사업단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실시계획에 착수해 내년 초에 시작할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당진시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의정 이 동 운 부의장 양 향 모		
의정활동지원팀	공무지원팀	신민정당지원팀
위원장 박정화	위원장 양기필	위원장 안희권
위원 김기재	위원 김기재	위원장 정상영
위원 홍기후	위원 변영희	위원 박정화
위원 정상영	위원 홍기후	위원 양철모
위원 황선숙	위원 안희권	위원 황선숙
	위원 이재갑	

후반기 의정활동도 변함없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새누리당 당 대표 적합도' 나경원 22.8% vs 서청원 21.9%

## <리얼미터> 새누리당 개별 지지층 대상 실시...초박빙 1,2위 접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8·9전당대회가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새누리당 개별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당 대표로는 나경원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9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누리당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22.8%, 서청원 의원이 21.9%로 초박빙 1,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주영 의원(9.4%)이 3위, 한선교 의원(9.3%)이 4위, 이정현 의원(6.8%)이 5위, 홍문표 의원

(5.8%)이 6위, 정병국 의원(4.9%)이 7위, 김용태 의원(3.5%)이 8위로 조사됐다. '기타 또는 모름'은 15.6%.

전체 1위 나경원 의원은 지역별로는 서울(26.8%), 부산·경남·울산(22.5%), 경기·인천(22.1%)에서 1위, 대전·충청·세종(24.9%), 대구·경북(22.3%)에서는 2위에 올랐다. 연령별로는 20대(30.0%), 50대(22.9%), 40대(22.7%), 30대(20.4%) 등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1위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2.4%)에서 1위, 보수층(23.4%)과 중도층(20.4%)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전체 2위 서청원 의원은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2.1%), 대구·경북(26.3%)에서 1위, 서울(22.6%), 광주·전라(19.2%), 부산·경남·울산(17.9%), 경기·인천(17.1%)에서는 2위에 올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8.0%)에서 1위, 50대(22.8%)와 40대(17.4%)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3.7%)과 중도층(23.2%)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전체 3위 이주영 의원은 광주·전라(27.9%)에서 1위, 경기·인천(16.4%)과 대구·경북(10.4%)에서 2위, 50대(17.3%)와 30대(12.1%), 보수층(13.3%)에서는 3위에 올랐고, 4위 한선교 의원은 진보층

(22.3%), 30대(17.5%)에서 2위, 부산·경남·울산(15.2%), 40대(14.8%), 중도층(11.0%), 60세 이상(10.9%)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새누리당 당 대표 적합도 조사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 519명,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29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임의접기(RDD) 스마트폰식(SPA) 및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6.6%(총 통화 15,823명 중 1,048명 응답 완료)이다.

김정환기자



**유성구의회, 의장단 취임 축하 쌀 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5일(금) 오전 의회 2층 의정실에서 취임화환대신받은 쌀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쌀기부는 제7대 유성구의회 후반기의장단 당선 축하 화환대신 받은 쌀 460kg을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성구의회 민태권 의장은 "바람직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이번 쌀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산시의회,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장은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설빈 의원을 간사로 선출



서산시의회가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장은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설빈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

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욱 의원은 전국 군읍비행장 소음대책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어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협상에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해미비행장 주변지역은 전후기 이착륙 및 선회로 소음공해가 심각해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곳이다. 서산시의회는 이 지역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출연연 전국 분원 설치 억제해야"

설치된 64개 분원 대한전수평가 실시...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할 것 강력 촉구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은 15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전국 분원 설치를 억제하고 기 설치된 64개 분원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하여 분원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현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분원이 전국 각지에 64개 설치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이다. 운영중인 분원은 55개, 건설중인 분원은 9개)

이상민의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연의 분원설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원설치 억제를 요구했다.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정치권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래부는 이상민의원 의원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4년 8월 분원설치 억제 정책방안을 마련한데 이

어 2015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관연구기관 분원 외 조직 설치·운영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여 사실상 분원 신규설치의 억제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64개 분원 가운데 41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받은 분원은 4개에 불과하며, 미흡이 8개, 보통이 29개였다.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3월까지 통합운영 및 기능재조정 등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방안 마련·제출 및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최종 조치할 예정이고, 보통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민의원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전국 분원설치를 방지하다시피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에 64개의 분원이 설치되게 되어 선택과 집중

이라는 과학기술의 기본정책 목표를 상실해 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로 인해 출연연이 연구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되다 보니 연구원 인력 몇 명을 파견해 만든 이름뿐인 분원으로 명맥 유지하기 급급한 분원이 속출하고 사실상 융복합 연구는 어려워지고 시너지도 내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부가 이제 분원설치 억제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설치된 분원에 대한 평가작업을 통해 재조정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압박을 극복하고 강력한 의지를 실현해나가야 하며, 기존 설치 분원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해 분원으로 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정복기자

## 대전시의회, 예지중·고교 정상화추진특위 업무보고 청취

대전시의회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호)에서는 14일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간의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특위 위원들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교육감과 박구선 이사와의 관계, 이시승 전 교장에 상소과정에 소요되는 기일(3개월)과 관련하여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질의하면서 사태악화의 원인이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는 가까운 시일내에 예지대 이사진과의 정식 간담회 개최, 타시도교육청 유사사태를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박선용 의원 선출

대전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에 새누리당 박선용 의원이 선출됐다.

동구의회는 15일 제22회 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선거를 진행, 새누리당 박선용 의원이 단독 출마하였으며, 투표결과 11명 의원 중 7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7표의 찬성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박선용 신임의장은 "제7대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행복과 동구의 발전 그리고 3만동구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7대의회 후반기는 소통과 새로운 협력, 변화와 청렴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기자

## 박정현 대전시의원 단식 풀어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반발해 지난 10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5일 단식을 풀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제 단식을 계기로 유례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를 했고 7월 14일에는 '중앙당 지도부는 대전시의회 등의 원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윤리심판원에 엄중함 중징계를 요청했고 윤리심판원은 신속하고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라는 당대변인의 브리핑이 나왔다"면서 "단식과정에서 삼일위원장 선거 연기 등 여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중앙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기에 단식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강훈식 의원,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제1호 법안으로서민 소득 안정화 선택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은 15일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금액을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다.

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에상정책자가 작성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지출한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2017년 4,784억 원, 2021년 5,122억 원 등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2조 4,759억 원의

평균 4,952억 원정도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000억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3,074,002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서민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산다."며 "앞으로 증산증과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입법정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시의회 제3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남)는 7월 14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민간위탁 동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했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통 생활 폐기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추진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요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도 원안가결 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사연구 위탁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매각 분할납부 방법 보완 등 논의 끝에 수정가결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 중앙선관위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민주주의 발전 기여할 수 있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 '제8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8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무료강의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8월 16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avicedugo.kr/)를 통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홍신 소심가가 맡고,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이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 등에 관한 전문과정과 역사·인문·문화·언론 등 교양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 3월 처음 개설하여 7기까지 운영하였으며, 51명의 다양한 계층의 대한민국 일반 유권자분들을 수료생으로 배출하였다. 김정환기자

## 이은권 국회의원 "대전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규모 큰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해 관리 필요해



이은권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중구·사직)이 지난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우리나라 하천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하천을 하류부는 국가가 관리하고, 상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상·하류를 연계한 일관성 있는 하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전시의 경우 중구와 동구를 흐르는 대동천도 유역면적 50km 이상이고 인구 20만 이상의 대전 시내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서 국가하천

승격기준에 적합함에도 국가하천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며 대전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한 번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을 지정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로 달라 홍수피해 등 하천에서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후복구 위주의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낭비 요

인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주요 지방하천을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철도역사 116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통한 철도문화기차 재창출을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철도는 1899년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6년 경부선 그리고 이후에 호남선을 개통했는데 국립철도박물관은 이러한 철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에 건립되어야 한다"며 대전유치물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정복기자



# 공무원 성폭력 5년새 2배 늘어

### 경찰 5배 · 교육공무원 2배 증가...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로 물의를 빚고, 인권부장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 하는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새 경찰관 성폭력은 약 5배, 조종교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여성가족

위원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가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10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2011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33건으로 약 5배, 교육공무원 역시 2013년 40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3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공무원과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당한 공무원 성범죄 실태를 지적했다.

또 "공무원 범죄 중 유독 성폭력 범죄만 2배 증가한 것은 공직사회의 성범죄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며, "여성가족부를 포함 정부 차원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 세종시 정부합동평가 전국 1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7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도)로 나뉘어 나·나·3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세종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특별·광역시는 물론 도까지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세종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1개 분야당 3억 원 총 2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공주시, 대학생 여름방학 학습지원단 발대식

## 사회경험 제공 · 경제적 부담 경감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역 대학생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함은 물론 대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학생 여름방학 학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대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여름방학 학습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어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학습지원단은 타 지역에서 대학 재학을 위해 공주로 전입한 대학생

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많은 추억거리를 남겨주고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배우면서 공주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학습지원사업은 지역대학생 학습지원단 100명이 참여해 저소득층 및 학습지도 희망 초·중학생 400여명과 1대3 또는 1대4 매칭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도는 물론 대학생들의 전공과목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학습지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기간 중 20일 범위 내에서 학습지도

를 실시하고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90만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초·중학생의 기초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물론 지역 대학생들의 현직체험과 교육실습 및 봉사기회를 제공,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 교육체육과 교육정책팀 이은창 팀장은 "이번 사업은 교육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대학생들이 지난 재능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자 마련됐다"며, "대학생 여름방학 학습지원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많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한화첨단소재, 2016 한화에코스쿨 협약식 진행

## 친환경 과학교육 체험 · 학습기회 제공

한화첨단소재(대표 이선석)가 15일, 진관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학교육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 한화에코스쿨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불광동 소재 진관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첨단소재 이선석 대표와 사회 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박주준 상임이사, 진관지역아동센터 이성진 센터장을 비롯해 한화첨단소재 임직원 봉사단원 및 아이들과 미

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화에코스쿨 프로그램은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학교육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한화첨단소재의 대표 친환경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관지역아동센터 4~6학년 학생 약 20여명, 여름방학기간동안 주 3회씩 과학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태양광, 수소, 풍력, 태양열 등 10여 가지 친환경 과학교육 콘

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특히, 한화첨단소재는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한 '친환경 위크북'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첨단소재 관계자는 "작가 아동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과학 원리를 익히고, 환경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더 나아가 진로와 직업 탐색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인재의 품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 “시대정신 담은 개헌 추진하겠다”

### 정용기 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정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은여의도에 위치한 새누리당 당사와 대전시당 당사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잇따라 진행되었다.

정용기 후보는 '대선승리'와 '개헌추진', '새롭고 건강한 보수정당 건설'을 출마의 변으로 밝혔다. 정용기 후보는 "총선과 배의 가장 큰 원인이 계파갈등이었음에도 반성과 사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은 채, 다시금 대선투쟁의 계파투쟁의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진박도 비박도 아닌 '진국민국',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정용기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로 '대선승리'를 꼽았다. 그는 "이번 지도부는 내년 대선후보 경선을 공정하고 투

명하게 관리해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일구어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당직자로 임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 당무를 잘 알고,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두 번째로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는 "직접 행사하지도 못할 권한을 대통령 1인에게 모아놓고 싶지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관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관료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고 수도이전 등 세 종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을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정치권력의 분권화와 사회경제적 수도권 권력의



분권화를 함께 제안한 것이다. 특히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새롭게 출범되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부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정용기 후보는 "새롭고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깨끗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생활보수라는 4대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당의 모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보수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후보는 당에 변화가 절실하며, 변화를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화를 위한 용기"인 정용기 후보를 지지하고 성원해 줄 것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 대전교육청 '우수교육청' 선정

###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대전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8개 특별·광역시 중 우수교육청(종합 2위)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고의 교육청임을 입증하였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7개 영역(23개 지표, 세부 89개)으로 구분해 교육 전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평가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7개 영역 중 6개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내실화, 교육수요만족도, 교육청특색사업 등 3개 분야에서는 작년 대비 큰폭으

로 상승하였다.

특히, 체험과 실천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과 꿈·끼 자람을 지원하는 진로 진학 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채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행복도,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분야에서 '매우우수'의 평가를 받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도별 특색사업 평가 부분에서도 대전시교육청의 '바탕교육'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바탕교육'은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및 기본생활습관 등 기초교육을 제대로 실천하지는 성장에서 비롯되었으며, '기초가 튼튼한 사람, 바탕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대전만의 다양한 기초·기본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그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며 심사위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말 특별교부금(인센티브)을 차등 반영하여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작년도도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약 50억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LED전등 교체 등으로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고,

금년도에도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특별교부금 전액을 인센티브로 교부하는 등 유해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현장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살중호 교육감은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당선은 대전교육가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대전시민의 관심과 격려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을 넘어 세계교육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충남대병원-유수의일본병원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병원운영 선진사례 공유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와 충남대학교병원 원장 김봉욱은 지난 6~8일까지 일본 관서지방의 유수의 병원과 공동 워크숍 및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대학병원 운영'에 관한 주제로 충남대학교병원과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 간의 병원운영에 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중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다.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은 나

고야 도시권의 핵심의료기관으로, 2007년에 가타나 암센터 개소, 2014년에는 선도연구센터를 개소해 시민의 건강과 증진 및 임상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충남대학교 오덕성 총장, 이준현 국제교류본부장, 김규용 건축공학과 교수와 충남대학교병원 조덕연 진료처장, 나용길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단장, 안명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과정에 참석했고,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 쿠리 겐지로 나고야시립대학교

총장, 조 타쿠시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장, 유규영 교수 및 병원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크숍의 주제발표는 조덕연 진료처장의 '충남대학교병원 본원의 현황 및 부지 마스터플랜', 조 타쿠시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장의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 현황 소개', 나용길 세종충남대학교병원건립단장장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계획'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충남대학교병원 현황 및 부지 마스터플랜 발표에서는 충남대학교병원의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위상과 비전, 연혁, 시설, 진료실적, 의료장비에 관한 현황과 부지이용에 관한 단계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소개했다.

이어서 나고야시립대학교병원 현황 발표에서는 비전, 연혁, 시설, 진료실적, 의료장비 등에 관한 소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계획에서는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외래진료부 및 병동의 구성 방향을 포함한 진로계획, 의료-바이오플러스트로서의 새병원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송병배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양의 기사를 드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의 디지털 구독 서비스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대로 26-26 대동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 특 정 •

제1회 창의인성 품의 오디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8일 오후 1시 50분 대전교육과학 연구원에서 열리는 제1회 창의인성 품의 오디션 참석.

국회의원 초청 구성현안간담회



한현택 동구청장= 18일 오전 11시 구성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초청 구성현안간담회에 참석.

기관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



박용갑 중구청장= 18일 오전 11시 구청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중구 기관단체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제219회 정례회제6차 본회의



박수범 대덕구청장= 18일 오전 11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19회 정례회제6차 본회의의 참석.

# 대전역~오송역 BRT 20일 개통

### 세종시청까지 36분 · 정부종합청사 45분 · 오송까지 70분에 연결... 25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오정동, 세종시청, 정부종합청사를 거쳐 오송역에 도착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인 대전역~오송역 BRT(이하 대전역 BRT)가 20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대전역 BRT는 대전역에서 세종시청까지 36분, 정부종합청사 45분, 오송까지 70분에 연결된다.

그동안 오정동 공구상가 상인들은 대전역 BRT 노선 운영을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으로 진입차 공간이 없어 상권이 쇠

락하고 있다며 전용차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오정동 공구상가 지역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성하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인대표와 업무 관련 과장으로 구성된 BRT운영 개선대책협의회(TF팀)를 구성·운영하여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진입차로를 위한 차량 진입관 설치 등 6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오정동 공구상가 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상인회에서도 그동안 도로변에 부착했던 BRT 반대 플래카드 60매를 지난 12일 모두 제거하고 상가 앞 보도 상에 물품적재를 금지하면서 진입차로 이외의 불법 주차를 자제하기로 하는 등 오정동 공구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역~농수산오거리 구간은 BRT 운영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며 상인들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한층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주민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 후 시승식을 시작으로 20~24일 5일간의 시험운행 시 무료로 탑승하며 최종 운행계획(배차간격, 시간표 등)을 확정하고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대전 BRT가 대중교통 중심의 대전을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정동 공구상가 민원의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민·관 협력은 대전시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오정혜 · 이영호씨, 각종 공연장 · 진행프로서 참여활동 전개

##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댄다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뿌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오정혜, 이영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1992년 미스춘향 진으로 데뷔해 한국영화 최초의 100만 관객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인 영화배우이자 국악인인 오정혜씨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기록을

소유한 前 프로그래머 이영호씨를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대사로 15일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오정혜씨와 이영호씨는 "대전 효문화뿌리축제는 타 지자체 축제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보장해 3대가 함께하는 효의 대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제8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효통(孝通) 한마당! 고마워 효(부모), 감사해 효(친구), 사랑해 효(젊음)'라는 주제로 지난 축제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보장해 3대가 함께하는 효의 대향연을 펼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 "제8회 축제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오정혜 · 이영호씨가 우리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를 전국에 홍보해 주길 희망한다"며 "2년 연속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된 효문화뿌리축제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축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 市 나노기술 제품 국내외 기업 주목

### 나노코리아2016 참가, 65건 130억 원 구매상담 성과



대전의 첨단 나노기술과 제품들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경기고양시)에서 개최된 '나노코리아 2016' 전시회에 참가하여 65건 130억 원 규모의 구매상담, 기술거래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전 소재 7개 기업 중심으로 꾸며진 대전관에는 3일 동안 일

본, 인도, 이란 등 해외 바이어와 삼성, LG, 현대,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관계자 1000여 명이 방문, 대전 중소벤처기업들의 나노기술과 제품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시온텍은 인도 나노 관련 회사 포씨트론으로부터 바닷물 정수기술인 상수처리 모듈에 대해 1만개 규모의 구매 문의가 이뤄졌고,

(주)블루시스는 나노소재 물성측정 장비에 대한 수출상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주)코썬의 주사전자현미경, (주)소프트론의 초박수기 능성 코팅기술, 나노종합기술원의 식중독 유해인자 현장검출 기술사업화 등에 국내외 관람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전테크노파크,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주)블루시스, (주)엠시스, (주)시온텍, (주)소프트론, (주)에스엘텍, (주)코썬, (주)웍스 등 4개 기관과 대전 소재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시 김정홍 산업정책과장은 "나노융합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가 풍부한 대전은 나노기술의 사업화와 마케팅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와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원신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이동행대방 실시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산하 원신동새마을부녀회(회장 유숙자)는 지난 14일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세대 등 틈새계층 6세대의 이불 및 생활빨래를 새마을이동행대방으로 실시했다.

##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현장 점검

### 서구, 주민의견 수렴 · 운영 방법 등 시연 참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5일 탄방동 한우리아파트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 사용 현장을 확인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철식 부구청장은 종량기기 사용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종량기기 운영 방법 등 시연을 참관했다.

서구는 RFID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29일 6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 6개 아파트 단지에 RFID종량기기와 감량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강철식 부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 유성구, 드림스타트 이동 대상 동행하치 프로그램 운영

## 겨울질병은 여름에 '예방'

유성구(구청장 허태정) 드림스타트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드림스타트 이동 중 만3~5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동행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감기와 비염, 천식 등 겨울에 쉽게 발병하거나 더욱 심해지는 질병을 여름에 호흡기 관련 경험을 집중 자아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현장 방문에 의한 집중진찰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영호 기자

료로 시행되며 한방건강 상담 및 한방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효과를 높이기 위해 8월중 영양교육 및 건강식 요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 및 그 가족이 대상이다.

## 자치구 · 주민 합동 쓰레기 대청소

### 장미철 집중호우 하천변 · 주택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장미철 집중호우로 하천변과 주택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구 · 주민 합동으로 장미철 쓰레기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번 '장미철 쓰레기일제 대청소'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30일까지 실시되며, 5개 자치구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총 11개 지역 860명이 참여한다.

또 사업소와 공사공단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청사주변 청결의 날을 실시하여 장미철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한다.

이번 대청소는 지난 15일 중구

산성동 침산교에서 시 · 구 · 주민 합동으로 장미철 대청소를 시작하였고 이를 필두로 시 전지역에 합동청소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행복출씨 임양단체, 새마을단체, 자연보호협회, 그린리더 등 자생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장미철 쓰레기 처리에 시민과 온 공무원이 함께 청소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감사드리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대전시민의 행복을 키우는데 함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 대덕구 2017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 성료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6일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서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2017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에 300여 명의 수험생 및 학부모 등이 비오는 곳엔 날씨에도 참여해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1부 필승 합격 수시 지원 전략(하귀성 강사) ▲2부 수능까지 4개월 Master Plan과 효율적 학습전략(이병훈 강사) ▲3부 2017

학년도 한남대학교 입학전형(한남대 입학관리팀) 순으로 진행되어 알차게 정보를 제공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입시전문가들에게 최신 입시정보를 직접 듣게 돼 매우 유익했다"며, "오늘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수시 지

원에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한 학부모는 "매년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바뀌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대덕

김태선기자

daejeontoday.com

송병배 기자



# 공주시-프랑스 페르피냥 시 교류회담 성료

##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 최대 청과물 유통센터와의 판로 개척 교두보 마련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유럽 최대의 청과물 유통센터가 위치한 프랑스 페르피냥시와 교류박람회 등을 가지는 등 국제교류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불 지자체 교류박람회에 참가, 페르피냥 시와의 교류회담은 물론 공주밤 가공식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공주시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를 활용한 기념품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페르피냥 시와의 교류회담에서 관광담당 부시장인 피에레 시의원을 만나 상호방문 등 양도시의 교류 의사를 확인했다.

이어 석장리 박물관과 구석기 유물을 교차 전시 중인 포파벨 박물관과 포파벨



시를 방문해 구석기 유물 유적 발굴 및 보전과 더불어 구석기 문화를 세계에 알

리는데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또한 페르피냥시의 유럽 최대 청과물 유통센터인 세인트 찰스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공주밤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한 업체로부터 공주밤 수입을 위한 샘플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공주시 시장담당관실 교류협력팀 유문성 담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유럽 최대 청과물 유통센터인 세인트 찰스 인터내셔널과의 유망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한편 페르피냥시는 인구 14만 명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청과 물류의 집산지이며 포파벨 박물관이 위치한 포파벨 시는 유럽 최대의 선사유적지로 현재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공주=정상범 기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하계 대수송 대비 차량안전경영회의" 개최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본부장 양운학)는 지난 14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하계대수송대비 차량분야 안전경영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을 위한 청렴 비전선도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철도공단 충청본부, 하계 휴가철 앞두고 청렴(淸廉) 결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지난 14일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협력사와 합동으로 대전역 광장에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아산농협,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농협중앙회아산시지부(지부장 남기범)와 고흥주부모임아산시연합회(회장 김미제), 송악면 새마을회 등 40여명은 15일(금) 오전 10시 아산외암마을에서 「휴가철 맞이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하천 정비,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하게 도시 관광 및 마을정비사업을 실시했다.

## 조폐공사 협력사 초청 워크숍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위한 방안 모색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는 김화동 사장 주관 하에 협력사 초청, 동반성장 및 정부3.0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한 2차 워크숍을 화폐본부(경북 경산시 소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인쇄 및 주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10개사) 대표가 참석해 그간 공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아울러 관련분야 기술개발, 협업과제 추진 등 상호 협력방안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조폐공사는 2016년 정부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공사가 보유한 기술 이전, 사업컨설팅, 매출액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등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0일 제1, ID 분야 협력사 대표 초청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갖는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 주관 행사로 조폐공사는 앞으로도 협력사를 초청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시간을 통해 상호 Win-Win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정부3.0 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 보령머드축제 식품안전관리

### 대전식약청-보령시 함께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오는 24일까지 대전해수욕장(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보령머드축제' 기간 중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충남 보령시와 함께 식품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이번 홍보 활동은 핫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는 ▲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요령 ▲식재료 적정온도 보관 및 사용 요령 ▲핫집에서의 식중독 예방 요령 등이 진행된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에게는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물티슈, 치약 및 칫솔세트 등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장에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태안 천리포 수목원 IWGS 수상품종 전시회 열려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원장 구길본)이 여름을 맞이해,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련'이라는 주제로 수련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대표적인 여름 꽃이라 불리는 수련

들 중에서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열대 수련을 전시함으로써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전시되는 수련 품종은 IWGS(THE INTERNATIONAL WATERLILY & WATER GARDENING SOCIETY)에서 수상한 수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

는 보기 어려운 수련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더불어 물도란, 여러연꽃, 물칸나, 연꽃, 물무궁화 등도 다양한 품종이 전시된다.

천리포수목원 연구관리홍보팀 남수환 팀장은 "천리포수목원에서 수련향기가 가득한 해풍을 맞으며 무더운 더위를 식히고 힐링과 휴식, 수련을 비롯한 아름다운 식물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천리포수목원에서 여름을 보낼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달 30일까지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천리포수목원 입구정원과 밀려가든 내 습지원에서 진행되며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에서도 일부 전시된다.

수목원에 따르면 휴가객들이 좀 더 유쾌하게 수목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개장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www.dhollipo.org)를 참고하면 된다.

태안=김정현기자

## 대전세관 개청 38주년 기념식 실시

### 신서해안시대 중부권 물류중심으로 제2의 도약 다짐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지난 15일 개청 38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관세발전에 공로가 있는 관세행정 협조자 및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계하관장은 기념사에서 "대전세관은 개청 이래 수출입업체 신속 통관 지원과 불법·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FTA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경제활성화

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대전세관은 1957년 1월 25일 군산세관 산하 대전감시서로 출발한 이후 1978년에 대전세관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있다.

또한, 올 2월 조직개편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대전세관비즈니스센터가 편입되면서 서해안 물류의 중심세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송병배기자

## 청양군 피서철 물가동향 예찰 활동 강화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8월 24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동향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요 관광·행락지의 부당요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숙박료(여관, 펜션, 야영장) ▲음식값(김치·된장찌개, 생선회) ▲음료(생수, 콜라, 사이다) ▲주류(소주, 맥주, 탁주) ▲피서용품 이용료(사위장, 파라솔, 튜브) 등 15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피서철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등 거래과정에서 소비자에 정보제공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피서지 바가지요금, 자칫해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기 내 한 몫 챙기기를 사전에 억제해 피서철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 기자

## 아산시 무인헬기 활용 병해충 공동 방제단 운영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는 지난달 28일, 아산시지역농협 무인헬기 연합사업단과 협의회를 갖고 이달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병해충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병·도열병 등 병충해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8개 지역농협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은 자체헬기 11대, 외부 13대로 총 24대 무인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

업기술센터 보유 광역방제기는 무인헬기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무인헬기 1대당 1일 방제면적은 평균 30ha으로 노동력 절감 및 방제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원격조정으로 일정거리를 두고 방제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약사용을 최소화 하고 방제 신뢰도를 높일수 있어 고효율의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인헬기 활용도 및 방제 면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항공방제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지난 '08년부터 시작된 무인헬기 항공방제는 매년 방제면적이 늘어나 우리시 식부면적대비 60% 정도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대학교 인문영재교육원

### ‘2016학년도 여름캠프’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 인문영재교육원 원장 박성욱 교수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대학 30주년 기념 관에서 ‘2016학년도 인문영재교육원 여름캠프’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참고)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여름캠프는 대학 인문영재교육원의 대표적인 행사 중의 하나로 올해는 인문학과 융합교육의 만남인 ‘H-STEAM(Humanity-STEAM)’이라는 명칭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초등생과 중등생 총 95명의 교육생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캠프는 단체생활과 협동심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및 창의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인문영재교육원에서는 ㈜넷임팩트코리아와 야심차게 준비한 ‘100여명의 체인지메이커들이 꿈꾸는 미래(사회적배려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자신이 모르는 잠재적 욕구를 발굴하여 이를 디자인에 적용. 대중에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 및 피드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정복기자

### 아산서, 여성안전 치안대책 ‘총력’



아산경찰서(서장 김중민)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대상 강력범죄에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전 특별 치안대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고조된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아산시 공중화장실 67개소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아산시외의 치안협업을 통해 범죄신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취약개소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적극 전개하

는 한편, 미용실, 편의점, 사찰, 보건진료소 등 여성 1인 근무지역 55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취약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 및 핫라인 등록 등 신속출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경찰서·아산시청·자율방범대, 시민경찰이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민·官·警’ 합동 여성안전 DREAM 순찰’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가짜 직거래 농산물 물렸거라!”

농식품부와 aT,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3일 시행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을 근거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 직거래 사업장을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별도로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공동체 직

매장 등이 해당된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은 품목별로 생산자 정보 또는 유통이력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거래 농산물 취급물량이 50%를 넘어야 한다. 또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통마진율도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야 하며,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송병배기자

# 관세청, 국익 극대화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선도

## 제127/128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참석 및 양자회담 추진

천홍욱 관세청장은 7. 14.(목) ~ 7. 16.(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총회’에 참석하였다.

1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을 적극 홍보하고, 테러방지 공조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디지털 세관(Digital Custom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였다.

세관활동의 효과성, 효율성 및 조화에 기여하는 자동화되거나 전산화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화된 세관통관시스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전자적 데이터교환, 웹사이트 및 스마트기기 사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관세청은 현재까지 10개국에 3.3

억불 상당의 UNI-PASS를 수출하였으며, 이번에 각국 세관당국 최고 위급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통해 UNI-PASS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WCO는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대비하여 세관당국간 국제공조 및 경찰·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

조하였으며, 한국 관세청도 WCO의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 기간 동안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체결, 자유무역

협정(FTA)의 효과적 이행방안, 불법무역단속 공조 등 양국 간 교역 증진, 경제·사회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공인한 성실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검사 생략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09년 도입)

우리나라의 AEO 업체가 상대국에서도 AEO 혜택을 받게 되는 세관당국 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과 체결했다.(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

관세청은 매년 180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WCO 총회를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고, 여러 회원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국가 간 주요 관세행정 현안을 해결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철도공단, 법무교육 통해

해외사업 리스크 최소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해외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공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계약관리 및 법정분쟁에 방 교육’을 실시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해외철도시장에는 사업관리 영역·민관협력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공단이 네 팔·인도네시아·필리핀 등지로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직원들의 법무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계약 등의 해외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교육에는 정부-론스타 소송의 정부측 대리인이자 국제계약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김갑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소속)가 강사로 참여했다. 송병배기자

## 공주대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향후 4.5년간 총 45억 6천여만원의 연구비 지원

공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희수) 문화재보존과학과 조남철 교수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16년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4.5년간 총 45억 6천여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은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의류·음식·건축 등 전통문화자원과 현대 첨단과학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기존 전통문화 산업을 고도화·대중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선정된 공주대 조남철 교수팀의 연구과제는 ‘전통 제철기술을 활용한 고강도·고인성 다중구조 소재 개발 및 상용화’로 전통 제련법으로 얻은 철괴의 정련 및 단결정화를 통해 다중구조의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주방용 칼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동연구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민대, 순천대, ㈜두앤비 디자인, ㈜유석엔지니어링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참여 기관은 총괄 주관연구기관 공

주대와 함께 전통 단결정 기술 응용 촉진사업(연구개발, 응용 상품 개발 및 디자인 설계 등 성공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서창호 산학협력단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대학의 어려운 연구 여건 속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주를 위한 연구자의 노력에 감사하며, 전통문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융·복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동 과정은 최근 과학기술계의 연구 동향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전통산업의 명품화를 이끌어 신시장구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보령세무서, 국민에 다가가는 세정홍보



보령세무서(서장 최재호)는 지난 7월 15일(금) 16시 대전해수욕장 내 머드광장에서 『보령머드축제』의 성공기원 연주회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시행 등 세정 현안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대전지방국세청 음악동호회원들이 약 2시간에 걸쳐 젊음과 낭만의 축제에 어울리는 색소폰 연주와 성악으로 머드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큰 호응을 얻는 등 세정홍보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보령세무서 세정협의회(위원장 정해천) 위원들이 1,000여명의 홍보문구가 인쇄된 물티슈를 나누어 주는 등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세정홍보의 취지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박봉관기자

## 백석대, 서해5도 백령고·연평고와 업무협약 체결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 입학관리처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해 5도 고등학교 중 백령고등학교(교장 박성민)와 연평고등학교(교장 장근수)를 방문해 각 고등학교

와 업무협약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 체결로 백령고, 연평고 졸업생이 백석대학교의 서해 5도인 특별전형에 합격할 경우 4년간 기숙사 입사비 지원 혜택을 지

원받게 된다. 이번 행사는 교육 소외지역인 서해 5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는 취지에서 준비됐으며,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설명회는 물론 입학상담, 모의면접, 화과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백석대 백석희 입학관리처장은 “교육 소외지역을 방문해 진로설계와 입학 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협정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체계적 입학 전형을 준비해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한밭대,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실시... 최대 35억원의 사업비 지원받을 예정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3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교육시스템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밭대학교는 선취업 후진학 및 성인학습 수요를 전담하는 “미래산업융합” 단과대학을 설치하여 스마트제조기술융합공학과, 에너지ICT공학과, 자산관리학과, 창업지식재산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등 5개 학과 및 기업에서 요구하는 1개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학과의 입학생은 2017학년도

총 166명을 2016년 9월부터 수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학습자 편의를 위해 주말기숙형 학사운영, 1/2학기 이수 인정 프로그램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전 중 앙로에 위치한 교육장 내에 개설하여 학습자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성인교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밭대학교 송하영 총장은 “아간-주말 재직자 전형 평생학습형 학사체제를 운영하는 등 한밭대학교는 지난 9여년간 평생교육에 이바지해온 준비된 대학으로 이번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미래창조적 지속가능한 사회수요 평생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면서 사회수요 기반 으로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의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 2016년 사회적경제 전문가 과정 성료

아산시, 관내 기존 사회적기업가 및 일반시민 등 450여명 대상



아산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내 기존 사회적기업가 및 일반시민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아산시 사회적경제 전문가 과정』을 총 12강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아산시가 순천향대학교와 지난 3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것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판로지원 본 부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진행됐다.

특히, 원주지역 협동사회경제 기업 방문과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아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협동의 가치 지향점을 관내 사회적기업 및 수강생 등과 공유했으며, 또한 아산시가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협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의지에 대해 수강생들과 같이 정책 공유를 실현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천소방서, 서면 남·여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지난 14일 서천서부수출회 회의실에서 노박래서천군수 및 도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남·여의용소방대장이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탕정파출소, 어린이집 대상 경찰체험 행사 실시 지난 14일, 탕정면 관내 코영정일 어린이집을 방문, 원생들을 상대로 경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공주서, 교통사고 예방 위해 칼라레인(차선지나표지) 설치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노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이 많고 길이 복잡한 정안C교차로, 삼계교차로(대전시계), 장암교차로 등 도로에 칼라레인을 설치했다.



당진소방서, 충남 119소방동요대회 은상 수상 지난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8회 충남 119소방동요경연대회에 당진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벌나래어린이집과 한옥어린이집이 유치부 은상을 수상했다.



진잠동새마을부녀회, "올여름 에너지를 부탁해!"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숙) 산하 진잠동새마을부녀회(회장 정미숙)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주민자치센터 일대에서 유동인구에 손부채를 나눠주며 "올여름 에너지를 부탁해" 에너지 절약캠페인을 진행했다.

###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아산소방서,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증가로 인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최근 폭염으로 인하여 강, 계곡, 바다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의 증가로 사고발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휴양지에서의 물놀이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고자의 무관심, 방심 및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며, 한번 사고가 났을 경우 생명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고 중 하나이다.

다음의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 여름철 피서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자. 1.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2. 수영 중 피부가 감겨질 때에는 물놀이 중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3. 어린이들은 얕은 물에서도 사고 위험이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안전요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5.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6.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합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아산=리량주기자

# 여름 휴가철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주의

## 경찰청, '누리망 사기' 단속 강화기간 운영... 총동구매 피해야

최근 기온 상승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 사기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의 시작과 더불어 물놀이 공원의 시설과 용품 등 할인권을 급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가', '긴급', '한정품'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돼 오는 18일부터 8월 15일 까지 4주간 '누리망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2015년 누리망사기 피해 신고민원을 분석한 결과, 할인권·교통권·숙박권 등 '휴가 및 여행' 관련 누리망사기 피해신고는 총 798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7~8월에 전체의 약 30%인 23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물놀이 공원의 시설·용품 등의 '할인권'이 91건으로 39%, 항공기·렌터카 등 '교통권' 53건, '숙박권'과 '여행장비' 각각 44건순이었다. 피해가 가장 많은 '할인권' 사기 중 물놀이 시설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놀이 용품이 29건으로 많았으나, 2014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9건 대비 20건이 증가한 222%의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누리망사기에 대한 적극 수사와 예방을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지정 후 전국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책임 수사관'을 적극 운영하고 누리망 다중피해 소포물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토록 수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시 피해자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가 명백한 경우 사기 소포물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충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등 심의를 요청하고 사기 게시글은 네이버 등 해당 포털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명절까지 누리망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캡'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돼 총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홍성서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홍보

홍성경찰서(서장 양윤교) 갑산파출소는 7월 11일 인사이동에 따라 관내 9개 마을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 하고 담당 경찰관이 변경된 마을회관을 방문해 담당 경찰관 소개 및 담당실명제 액자를 재장비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바로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마을 담당 경찰관'을 시행하고 있는 갑산파출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최진우기자

## 대전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정 예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간제 교사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방학기간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임용 시 방학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 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계약 기간에 방학 기간이 포함될 경우, 방학 기간을 전후로 하여 계약 기간 내서 근무의 자율 연수 실시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급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상의 불합리한 점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금산서, 결혼이주여성·탈북여성 안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탈북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욱)는 지난 15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여성단체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근수), 미향보타리클럽(회장 임예순), 보안협력위원회(회장 홍영수) 등의 민간 여성단체와 경찰이 상호협력력을 통해 공동 대응한다는 것.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및 탈북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의욱 서장은 "오랫동안 생활 안전, 보안·외사업무에 몸담아온 노하우를 살려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손광우기자

## 공주소방서, 행복전도사 장경동 목사 초청 특강

7월 직장교육 중장경동 목사 초청 '행복한가정 만들기' 주제 강연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지난 15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과 가족,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담임목사를 초청해 강연을 했다. 장경동 목사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주제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비결을 제시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공주소방서 직원들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다. 이날 장경동 목사는 강연에서 자신의 인생과 살아온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유쾌하게 전달하면서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불행하지 말고 하루하루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며 "가정에서

광고문의 (042)538-3030

청양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의 노력 계획

##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에 나서



청양경찰서(서장 홍덕기) 전 경찰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청양경찰서 경찰관들은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직원들과 재래시장이나 마트, 마을회관,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청양경찰은, 심자로와 청양도서관의 대형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시장 등 주민이 모인 장소를 찾아 지체 제작한 포스터와 팜플렛을 배부 및 최근 사례 홍보활동을 하고, 노인회 등 각종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회원들에게 동영상 방영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검거도 중요하지만, 금전적 손해가 없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여성안전위한 보건소 방법진단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 여성대상 범죄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소장 권영철)가 여성대상 범죄에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면내 보건소 2개소를 방문해 방법진단을 실시했다. 보건진료소는 여성 1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치 또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가 많아 여성대상범죄 및 각종 범죄로부터 늘 취약점을 갖고 있어 경찰은 지난월부터 대대적인 방법진단을 실시해 CCTV, 시정장치, 방범장 등 방범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신평파출소는 이날 신평리, 한정리 보건소를 방문해 방범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슬라타락장문 안전잠금장치 등 방범용품을 설치했으며, 또한 여성 혼자 근무하며 겪는 불편 및 불안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여성불안신고 국민제보앱'에 대한 홍보도 실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관내 4개소 운영 범죄 예방에 앞장

서산서 여름파출소, 7월 14부터 8.16일까지 운영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가 지난 14일 태안군 소원면 소재 만리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관내 4곳에서 바다 파출소를 운영한다. 여름파출소는 7월 14부터 8.16일 까지 34일간 태안 만리포, 꽃치, 몽산포, 학인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산=김정환기자



# 직장인 81% “지금 하는 일, 평생직업 아니야”

## <잡코리아>직장인과 구직자 모두 자신의 고용 안정성 어렵게 전망하고 있어

직장인 5명 중 4명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평생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직업에 대해서도 직장인과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개념이라고 입을 모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직장인 및 구직자 2,983명을 대상으로 ‘평생직장과 평생직업’을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215명 중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나의 평생직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다. ‘딱히 평생직업을 찾은 건 아니지만 이 일은 내 평생 직업이라 할 수 없다’고 부정하는 응답이 46.1%로 가장 많았고, ‘내가 꿈꾸고

준비하는 평생직업이 따로 있다’는 응답도 34.6%로 적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평생직업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구직자 1,778명 중 77.3%가 ‘아직 내 평생직업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평생직장을 바라보는 직장인과 구직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잡코리아가 대한민국에 평생직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결과 직장인과 구직자의 절반 이상인 51.3%가 ‘사라진 개념’이라고 답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응답은 21.6%를 얻는 데 그쳤으며, 이보다 많은 27.1%의 응답자는 ‘공무원, 공무원 등 일부 직장에 한해서만 존재한다’

고 답했다.

실제로 직장인과 구직자 모두 자신의 고용안정성을 어렵게 전망하고 있었다. 먼저 직장인들에게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자신의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8.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는 응답은 무려 72.0%에 달했으며, 19.3%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자신의 고용안정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매우 안정’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7.1%에 그쳤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꼽은 응답도 34.4%에 그쳐 전체적으로 직장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많은 39.2%의 직장인은 ‘실질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9.3%로 ‘매우 안정’을 꼽은 응답자에 비해 그 비중이 2.7배나 높았다.

‘불안’ 또는 ‘매우 불안’을 꼽아 고용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즉 20대 직장인 중 고용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난 가운데 30대 61.8%, 40대 이상은 69.7%를 기록했다.

한편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 역시 향후 취업할 회사가 자신의 평생직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모습이 었다. 잡코리아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구직자의 64.8%가 ‘향후 취업할 회사가 나의 평생직장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생명사랑 심쿵스쿨’ 무빙콘서트 개최

논산계통교육지원청, 중·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약880명 참석



논산계통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7월 14일 09:30-12:30까지 건양대학교 컨서트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인솔교사 약8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사랑 무빙콘서트-심쿵스쿨’을 개최하였다.

이번 콘서트는 주공정 MC의 진행으로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활발히 소통하였고,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평소 공부 시간과 같은 4교시 가상수업 프로그램

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김일규 교육장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며 오늘 심쿵콘서트가 학생들에게 즐겁게 꿈과 끼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참석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응원하였다.

이어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활동에 많이 관심을 갖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논산=김태선기자

## 대전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300여명 대상

# ‘학교관리자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월 14일, 15일, 26일, 27일 총 4차례에 걸쳐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3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관리자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번 교육은 대전시교육청의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관리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시뮬레이션 체험, 교통안전 문화 학습관과 교통 박물관 견학을 비롯하여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의 체험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학교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의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는데 교장·교감의 앞장서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관리자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학교관리자 뿐만 아니라 교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365 안전집합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요원 500여명을 양성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도 여름방학 중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 ‘중국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 참가

세종시교육청,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 교육협력 사업 확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해하고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에서의 후원을 받아 열리는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2016 International Students Summer Camp-Beijing)에 지난 14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23개국 만 14~18세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북경시 국제교류센터(BIEE, Beijing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가 주관하는 국제학생 캠프 프로그램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북경 국제학생 여름캠프에 관내 2개교의 학생 9명(아름 8명, 두루고 1명과 인솔단 2명이 참석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매년 30명이 참가했으나, 올해는 서울, 제주와 함께 각각 10명씩 초청을 받아 세종시에서도 참가하게 됐다. 세종시교육청과 베이징교육위원회 간에 체결된 업무협약(2014.5.19)에 따라 청소년 예술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청소년 합동공연단 세종시를 방문한 북경교육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이번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이번 캠프 참가자 전원에게는 행사기간 동안의 숙박, 체험활동, 관광 등의 일체의 경비지원을 초청 기관에서 부담하며, 참가자들은 왕복 항공료만 자비 부담한다.

세종=이정복기자

# 청양교육지원청, 함께 모여 학교 변화 꿈꾼다

청양교육지원청 학교혁신 동아리 운영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은 지난 14일 ‘푸른빛고를 학교혁신 동아리’ 모임을 갖고 학교 혁신을 위한 현장 활동가양성에 나섰다.

푸른빛고를 학교혁신 동아리(이하 혁신 동아리)는 청양 관내 희망 교원 27명이 참여하여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며 실천함으로써 학교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5월 첫 모임을 시작하여 매월 1~2회 목요일 일과 후에 모여 독서, 수업 나눔, 주제 연수, 토의·토론, 세미나, 사례 발표, 견학 등의 형태로 운영한다.

이번 7월 14일 모임에서는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를 읽고 각자가 인상 깊었던 점을 서로 이야기 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양=정성범기자

# 생활지도상임위원회 야간 합동 순찰

보령교육지원청,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실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14일 오후 9시부터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보령시 생활지도상임위원회와 함께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야간 합동 순찰은 기말고사시 종료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이 학교 밖 활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생활지도상임위원회는 합동 순찰을 하며 유해업소 학생 출입금지를 제도했으며,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귀가토록 지도했

다. 또한, 학교폭력책임교사로 구성된 생활지도상임위원회에서는 여름방학 전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다짐했다.

박도순 교육장은 “생활지도상임위원회의 야간 합동 순찰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생활지도상임위원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령=이정복기자



공주교육지원청, 초등 행복지원장학 평가회 실시

지난 14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공주 초등 행복지원장학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1학기 동안 진행했던 행복지원장학에 대한 행복지원장학지원단원들이 느꼈던 우수점, 개선할 점 그리고 내년도에 반영할 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서로 교환되었다.

# ‘2016 찾아가는 문학이야기’ 행사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 청양군 정산초등학교에서 개최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회장 김진수)는 지난 15일 오후 1시부터 정산초등학교(교장 김진석)강당에서 5, 6학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찾아가는 문학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찾아가는 문학이야기는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를 찾아 생생한 문학이야기와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하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마련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새마을문고운동을 확산코자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산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중심으로 개최한 2016 찾아가는 문학이야기

에서는 행복한 문학이야기 특별강의와 독후감 써보기, 애송시 낭송, 독서퀴즈 등으로 참여 어린이들에게 쉽고 생생한 문학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계기가 됐다.

김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이 아름다운 글과 좋은 책을 매개로 삶의 지혜를 익히고, 올바른 이상을 세워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문학이야기를 많이 듣고 독서량을 높여야 하며, 문학이야기와 독서는 곧 생활의 지혜를 축적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부여 백제중, 2016 백제중학교 토론탐미당 개최

지난 15일 교내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2016 백제중학교 학생 토론탐미당’을 열었다. 총 6명의 학생이 ‘남·여 성역할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과 지혜를 나누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 태안 송암초, 안전한 여름나기 수영교육

3, 4학년 학생들 28명에게 7월 12일~15일 4일간 실시

태안 송암초교장 김명희가 안전 여름나기 교육의 일환으로 3, 4학년 학생들 28명에게 7월 12일~15일 4일간 수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수영교육은 한국서부발전의 협력으로 WP생활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실시되었으며, 목적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수영 능력을 길러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물에 뜨는 법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발차기 방법, 호흡법, 바른 팔의 영법 등의 교육이 단계별로 지도되었으며, 수영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는 추가 과제가 제시되고 비교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집중적인 기초 연수 위주로 수업이 진행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대학연계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문대학교-충남교육청 연계... 충남도 중·고교생 약 300여명 대상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충청남도 교육청과 연계해 지난 6월부터 7월 15일까지 충청남도 중·고교생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 대학연계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총 14회 진행했다.

충청남도 중·고교 학생들이 구체적인 직업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된 대학연계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참가 학생 및 관계자들로

부터 호평을 들었다. 13일에는 충남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이 선문대학교를 방문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가 학생들은 선문대학교에서 하루 동안 ‘간호사, 물리치료사, 물고기 의사, 응급구조사, 치과 위생사’ 등 다양한 직업분야를 실습을 통해 체험해보는 활동을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동 정 ●

사회적경제 기업 리더 간담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16년 사회적경제 기업 리더 간담회에 참석, 오후 3시에 충청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

월요전략회의 주제



이춘희 세종시장은 18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월요전략회의를 주재.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는 18일 오전 8시 4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방사거점 황새 자연방사행사



황선봉 예산군수는 18일 오전 8시 30분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 업무보고 참석, 오전 10시 30분 예산황새공원에서 열리는 사막리 단계적 방사거점 황새 자연방사 행사 참석.

교육복지 지원 업무 협약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교육청 정책협의회실에서 열리는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충남지역본부 교육복지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깨끗한학교 만들기 교육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18일 오후 4시 10분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현장 중사원 교육에 참석.

예산군 상반기 공약사업평가 실시

예산군이 민선 6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10대 분야 82개 공약 90개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의 난이도와 파급효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 평가에 참석 한 위원들은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담당부서 사업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과 공정률, 추진 계획 등을 듣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아울러 불량이나 사업비 집행실적에 의한 단순 비교 평가를 피하고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내용 달성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예산=이상화기자

홍성군 향균회관에 충남 청소년성문화센터 유치

하반기 개소... 지역경제활성화 일조 기대

홍성군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함양과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설립되는 충남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홍성군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운영기관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으로 지난 6월 공모를 통하여 7월 6일 충청남도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돼 7. 11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충청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시설로 충청남도로부터 운영비 포함 사업비가 6천여만원이 지원된다.

홍성을 웰신리 소재 향균회관 3층에 개소될 예정으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체험실을 갖추고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운영,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개소로 천안과 내포신도시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10여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지식과 건강한 성 정체성 및 자기 결정권을 갖고, 청소년의 성문화를 건강하고 밝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군내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확산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원도심 공동화방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기관단체 유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유치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군의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최진우기자

'1시군 1수원 확보' 구체적 실행 나선다

도내 각 시·군별 수원 다변화 방안 점검·통합추진계획 수립



충남도는 15일 충남연구원 회의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상수도 담당 팀장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군 1수원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혁신 아카데미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도내 각 시·군별 수원

다변화 방안을 점검하고 통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혁신 아카데미에서 제시된 ▲신규수원 확보와 가용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동시 추진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연구 추진 등 전문가 의견에 대한 시군별 현황 및 추진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온천대축제&산림문화박람회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자 모집

예산군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산림문화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농·특산물관에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술과 온천이 숨쉬는 힐링 예산'이라는 슬로건이 있다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동안 '술과 쉼이 함께하는 웰니스의 향연'을 주제로 덕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은 축제와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판매를 위한 체험과 홍보를

포함한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운영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1명 이상 상주하며 판매 부스를 운영해야 하고 모집대상은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군의 시책 및 공익사업 홍보 등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와 단체, 기업으로 식재료, 약용작물, 가공식품, 과일·채소, 기타 특산물 등이다.

군은 기본부스 및 현수막과 함께 행사용 테이블, 의자, 전기시설 등을 제공하며 부스가 한정돼있는 관계로 공익성과 축제와의 적합성,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

이다.

또한 다음달 17일 대상자를 선정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참여자 교육과 친절 교육 등을 진행해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과 진정된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청 문화관광과(339-782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향토 농·특산물 판매 농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우리 군이 이번 축제와 박람회를 계기로 중부권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기자

기존 도시건설방식 개선·향상 창의적 제도 발굴

행복도시 건설문화 혁신 선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이 기존의 도시건설방식을 개선·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제도를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혁신적인 건설문화 선도를 명품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대책 중 현장관리기 우수한 현장과 관리가 미흡한 현장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현장멘토링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장 멘토링제도는 우수한 현장의 품질·안전관리 노하우(Know-how)를 다른 현장에도 공유하게 하여 행복도시 전체 건설

현장의 건설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3월 행복도시 세종시 새롭동(2·2생활권)과 세종시 따라동(3·2생활권)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현재 50개 건설현장 10개 그룹들이 참여 중에 있다.

또한, 현장 멘토링제도 적용대상 건설현장도 공동주택에서 공공건축 분야, 광역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TH) 발주현장 등을 포함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현장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우수 사례들을 선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노하우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고,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알림소식)→간행물 코너에도 게시하여 전국의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현장멘토링 제도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현장 멘토링제도는 ▲인근 현장 간 자율적 협업분화 조성 ▲개별 현장을 넘어 도시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강화 ▲전문 건설정보 교류의 장벽을 없애는 상호효과 창출 ▲지속적으로 상승·발전하는 선순환(善循環)구조를 갖추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며 건설문화 선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문화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안전·시공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태양광 전문업체·발전회사 다양한 사업제안 확대

행복도시 에너지 자족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친환경 녹색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전문업체와 발전회사의 다양한 사업제안을 확대하여 태양광 특화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도시건설의 2단계 완료시점인 2022년까지 행복도시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총 25MW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말에는 고온동자전거도로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행복도시에는 자전거도로, 방음터널, 주차장 등 다양한 도시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 새롭동(2생활권)에 설치 예정인 방음터널,

주차장, 저류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안정성과 기술성, 경제성이 확보되는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태양광 관련단체와 발전회사 등에 요청하였으며, 제안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 등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의 제안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부지사용 승인,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행복도시를 에너지 자족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참여 유도를 통해 행복도시를 세계적인 태양광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농업 체험·몸-마음 힐링"

충남도, '해피버스데이' 행사 진행

온가족이 함께 버스를 타고 도심에서 농촌 둘러보는 '해피버스데이(HappyBusday)' 행사가 7월 한 달간 충청권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남도는 15일 논산 덕바위 마을에서 '도시와 농촌의 유쾌한 동행 2016 해피버스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 체험객들은 논산 덕바위 마을에서 옥수수타기,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통해 농촌의 정과 농촌이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해피버스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이 주관하는 농업·농촌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다.

해피버스는 대전 등 도심에서 출발해 당일 코스로 운행되며, 체험비는 전혀 무료다.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에코백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특별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체험 사진을 올려 선정되면 선물도 받게 된다.

해피버스의 향후 일정은 ▲22일 공주 계룡산 상신마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http://happybusday.tistory.com)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피버스데이 사무국(☎1577-2083)으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맞아 충청권에서 진행되는 이번 해피버스데이 행사를 통해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업을 체험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청소년보호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지역민·사회단체 관심 중요"



예산군은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동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활동은 예산경찰서와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BBS예산지회),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군보건소가 참여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와 청소년의 출연·유주 위험성 홍보, 위키 청소년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합동 캠페인단은 예산읍 산성리와 예산역전 주변 유포범지역을 순찰하고 편의점과 PC방, 식당, 술집, 노래방 등을 돌며 청소년 보호관련 계도 활

등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10명에게 '청소년 전학 1388' 등을 홍보했다.

특히 유혹·단란주점 등 청소년 출입 및 고공금지 업소와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제한 업소,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 및 신분증 확인 생활화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요즘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등장하고 청소년 탈선행위가 날로 심각해지는 등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유해환경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이상화기자

NAVER logo and search bar with text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등정

주간간부회의



복기왕 아산시장= 18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간부회의에 참석.

본회의



김흥장 당진시장= 18일 오전 8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월요간부회의를 주재,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8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이종윤 당진시의장= 18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8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

민원상담관 정례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 18일 오전 10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민원상담관 정례보고회에 참석.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



이석화 청양군수= 18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에 참석.



배방읍 '니눔이야기' 소식지 창간

이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담당 오병국은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이야기라는 소식지를 창간하고, 후원처와 기부자, 배방읍 관내에 500부를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브랜드인 행복키움추진단을 널리 알리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 동안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 이야기와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의 사업내용 등으로 꾸며졌다.

배방읍은 이번 소식지 발행으로 배방읍이 복지 허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요소인 민간복지기관·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혁 배방읍장은 "복지허브의 중심축으로서 소외된 이웃이 미소지을 수 있도록 행복키움추진단, 복지이장, 봉사단체, 후원자 등과 함께 살맛나는 배방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산=리량주기자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5-29 대동빌딩 1층

# 태안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열려

## 신두리 사구서 아름다운 모래조각의 향연... 내달 6~7일 까지 열려 불거리 가득

태안군이 제 14회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행사를 천연기념물 제 431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의 해안 사구가 있는 태안군 신두리 해변에서 개최한다.

군은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원북면 신두리 사구센터 일원에서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는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이하 모래조각 페스티벌)을 연다.

국제모래조각페스티벌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윤석(가주최·주관)는 이번 모래조각 페스티벌은 '바람의 언덕, 모래의 향연'이라는 주

제로 50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아름다운 모래예술의 장으로, 국내 대표적인 모래예술 축제인 각 광범하며 매년 전국의 관광객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는 모래조각전 외에도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국내외 전문작가 60명이 함께 하는 '초대작가 국제 모래조각전'이 펼쳐져 태안군과 연계된 소재를 주제로 환상적인 모래조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

을 찾는 '황금 두꺼비를 찾아라'(8월 6일) ▲해안사구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 걷기 대회'(8월 7일) ▲1회부터 13회까지의 모래조각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모래조각 갤러리'(8월 6~9일) ▲바다로 슬라이딩하는 '모래 썰매장'(8월 6~7일) ▲레이저 쇼 등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신두리 노을음악회 & 샌드 아트 공연'(8월 6일) 등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모래조각 페스티벌 참가신

청은 내달 5일까지로 선착순 500명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이 종료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2~8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send.taeanfestival.net) 또는 태안군청 관광진흥과(041-670-2763)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입상 팀에게는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우수상 5팀 각 30만원, 인기상 5팀 각 20만원, 특별상 3팀 각 20만원 등 시상금이 수여된다.

태안=김정환기자



## 당진시 휴가철 쾌적한 도시 만든다

###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수립·깨끗한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

당진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워져 행복한 클린 당진 조성을 목표로 휴가철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주요 피서지를 특별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진시는 내달 28일까지를 휴가철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광지 쓰레기 배출·수거체계 정비하고, 휴가기간 동안 난지점 3곳, 예목마을 4곳, 삼교호 관광지 1곳 등 주요 관광지 내에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했다.

또한 효율적인생활폐기물수거를 위해 평일에는 18개 팀이 시정 지역을 순회하며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이며, 주말에는 수거반 2팀을 동원해 관내 시가지와 관광지를 순회하며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에 대비해 기동청소반도 2개 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당진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휴가보내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난지점 해수욕장과 예목 해수욕장, 삼교호 관광지에는 '클린타임'을 도입해 안내방송을 하면 관광객들이 함께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을 운영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지만 관광지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며 "관광지를 찾는 다음 사람을 위해 쓰레기를 더 가져가고, 사용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결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식생활 하세요"

### 당진 농기센터, 행복밥상 실천 시범학교서 캠페인 전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관내 행복밥상 실천 시범학교로 선정된 신촌초등학교와 합도초등학교, 고대중학교, 호서중학교 4개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쌀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건강식생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40여 분 동안 진행됐다.

캠페인 동안에는 이른 시간 등교로 아침식사를 거른 나온 학생과 교직원에게 우리 쌀과 지역특산물

인 단호박으로 만든 단호박쨈빵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나부사 과자 900여개를 나눠줬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는 학생들이 직접 '아침밥 먹기'와 '지역농산물로 건강한 식생활을 하자'라는 내용의 안내판과 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평소 아침밥을 거르고 다녔다는 한 학생은 "바쁜 아침에는 밥을 먹기가 번거롭고 부담이 됐는데 오늘 캠페인에서 주신 음식처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아침에 부담 없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좋



분히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우리 쌀과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 청양 관광 정보도 받고·선물도 받고

### 가족과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소식받기 이벤트 진행 중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여름철 관광객 유치에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홍보하고 나섰다.

군은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행락철을 맞아 베이비블로그와 카카오톡, 페이스 북에서 청양을 검색하면 청정하고 아름다운 칠갑산의 여름 절경과 유서 깊은 천년고찰 등 누리꾼들의 핫플레이스에 청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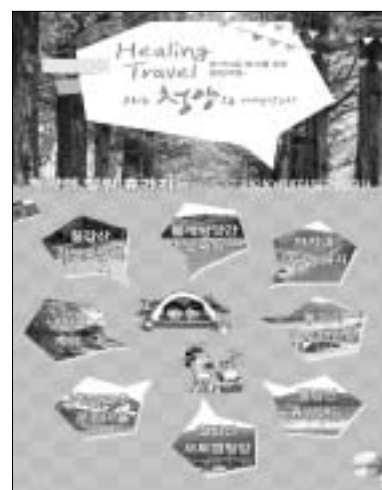
관광 페이지를 개설하고 파급효과가 큰 입소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베이비 블로그와 카카오톡, 페이스 북에서 청양을 검색하면 청정하고 아름다운 칠갑산의 여름 절경과 유서 깊은 천년고찰장사의 빼어난 자태, 칠갑산 줄

기로부터 시작되는 시원한 계곡의 모습을 게시글과 사진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또 오는 21일까지 청양 여행지 소식받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단위 잠재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관광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홍보의 다각화 전략을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평생 고객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 기자



## 태안군 무인발급·수수료 감면 등 민원편의 제공 박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10종 추가



태안군이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지 못했던 가족관계

등록 관련 민원서류 10종을 추가 발급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태안군청 2개소와 태안읍사무소·안면읍사무소·군흥면사무소·소원면사무소 등 총 6개소에서, 민원인들은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등 2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제적 등본 ▲제적 초본 등 총 10종의 민원서류

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일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50% 감면돼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이용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지적, 건축물, 공시지가 등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으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자리' 서비스와 더불어, 여러 발급신청 시 국제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권·국제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올해부터 추진, 한다.

태안=김정환기자

## "여름방학,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합시다"

### 청양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국 동시 캠페인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5일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국인 청소년 보호의식 계도 확산을 위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전국 동시 캠페인은 여름방

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출입 제한업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PC방, 숙박업소, 호프집, 소주방 등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방

문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또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을 위한 현의점, 소매점, 음식점 등 일련업소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및 청소년 고용 시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을 돌며 1388청소년 전화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도 실시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클린업 아산만들기 대청소 실시



아산시는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일환으로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국토대청소의 날로 정하고아산시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기관·사회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지인접 마을 및 주요 피서지, 터미널, 버스승강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

소등을 청소하여 쾌적한휴식공간제공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온양1동행정장 이선규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클린업 온양1동 만들기' 환경정화 캠페인과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아산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아산을 주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골목길 등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온양2동행정장 김형관은 본격적인 더위와 휴가철을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일환으로 대청소를 실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통장협의회, 기관단체, 환경지킴이회원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주요도로변 대청소와 온천대로변과 온양온천역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3톤여 가량을 수거했다.

온양3동행정장 전병관은 지난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일환으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중점 청소구역인 한성차 아파트에서 신동호 입구 구간을 중심으로 3동 청소지도요원을 포함한 관내 각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명과 온양3동 각 마을의 정결을 책임지는 청소지도요원이 함께 참여해 청소활동을 벌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았다.

영인면행정장 한기영은 지난 14일, 영인산수영장 개장 및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영인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 및 숙박동 등 영인산 주요피서지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이장단협의회, 남·여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관내 주요단체·기관을 비롯해 영인면,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배방읍읍장 김동혁은 지난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배방읍수처리계곡 주변에서 배방읍새마을금회지도자, 수철2리 주민,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지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처리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불법투기 방지되어 있는 각종 쓰레기를 약 2톤 가량을 수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서천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서천군군수 노백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인명피해는 농업·임업·어업 관련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예정이며,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등산 등 여가활동 행위 또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등의 피해는 서천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등이 서천군 지역 내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을 피해받은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고 발생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현장이 보존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현장 보존에 유의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 불법 현수막 대대적 정비 나서

부여군, 도시경관 훼손·교통안전 저해 불법현수막 철거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오는 20일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각종 축제와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관내에 설치되어 있어 세계유산도시 부여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높다고 판단, 오는 20일 부여군 전 지역에서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 담당자와 부여군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을 합동 정비반으로 편성하고, 허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한 상업용 및 공공현수막, 집회·시위를 하지 않고 불법 게시한 각종 집회·시위 현수막에 대한 철거 활동을 펼친다.

특히 도로변, 로터리, 관광지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부여의 깨끗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를 통해 휴가철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유산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가로경관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며 “이번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후에도 지속적인 불법현수막 단속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농기센터 “농약 올바르게 쓰세요”

논산시, 과수채소 재배농업인대상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과수 및 채소재배 농업인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사용기술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작물재배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원인을 바로 알고 올바른 약제방제를 통해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마련됐다.

이날 농약사용기술 향상 강의는 한국과수병해충연구센터 장일 이사장을 초청 ▲농약의 종류와 성분·특성에 따른 약효발현 기작 ▲약제 살포 시기 등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인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의응답식 교육으로 진행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김종원 교육정보팀장은 “농약을 사용하는 시기를 놓치거나 과다하게 사용하면 나중에 농약 잔류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법은 물론, 방제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 서동연꽃축제 100만 성공신화 이어갔다

무더위도 꺾지 못한 연꽃 기세·다양한 이벤트 관심 주목... 나이트퍼레이드 등 인기몰이

제14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100만 인파가 몰리며 지난해에 이어 성공신화를 이어갔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연일 찜 더위 속에서도 개막 첫 주 40만이 넘는 인파가 찾아오면서 개막식까지 지난해에 이어 100만 명 신화를 이룩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테마별로 다양하게 꾸민 야간경관조명과 더불어 저녁마다 펼쳐지는 이색 볼거리가 연출되면서, 평일에도 매일 수 만 명이 백제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찾아왔다.

특히, 무왕 서동과 선화의 야간 행차를 빛으로 꾸민 ‘나이트퍼레이드’는 색다른 묘미를 보여줬고, 세계유산등대 1주년을 기념하여 포룡정에서 펼쳐진 ‘수상인팩트 쇼’는 밤마다 관람객들에게 황홀감을 선사했다.

체험 프로그램들도 전국공모를 통해 대폭 강화되면서 사비백제 부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며,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공남지 포룡정에서 매일 선착순 40명에게 제공되었던 ‘사랑의 소원 풍등날리기’는 밤하늘을 사랑의 약속으로 수놓았고, 10만명 연지에 피어난 연꽃의 이름과 생태를 알아가는 ‘연꽃 스탬프 투어’도 생태교육의 큰 역할을 하였다.

키누를 타고 연지를 누비는 연



지탐함’은 갈수록 인기가 높았으며, ‘무왕의 느린 우체통’, 연방인형 만들기 체험 등은 소소한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해에 이은 100만 성공신화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는 메르스 등 혼란스런 상황이후 치러진 축제였기에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는 평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100만 신화가 이어진 것은 예전의 불신을 뛰어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하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연꽃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지역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냈다. 서동공원 주변은 물론 부여의 식당들은 북적이는 손님들로

육박지우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여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하여 관내 300여명의 학생들이 경연을 벌이며, 공연분위기를 한껏 조성했다. 부여소방서는 축제 기간 동안 소방상황실과 수상안전센터,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부여19수상구조대가 상시 대기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보였다.

이 밖에도 부여군의용소방대, 모범안전지회, 해병대전우회부여지회, 자율방범연합회 부여지회, 엄마순찰대, 적십자사, 녹색어머니회, 다문화가정, 실버봉사단,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이 행사 지원에 나서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부여군관계자는 “이번 연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많은 불편 속에서 적극 협조하여 준 군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 부족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내년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100만 명이 연꽃축제에 다녀가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면서 “천만송이 연꽃처럼 내년에는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경제의 견인축제로서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부여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교

육박지우선사업의 일환으로 ‘부여 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하여 관내 300여명의 학생들이 경연을 벌이며, 공연분위기를 한껏 조성했다. 부여소방서는 축제 기간 동안 소방상황실과 수상안전센터,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부여19수상구조대가 상시 대기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보였다.

이 밖에도 부여군의용소방대, 모범안전지회, 해병대전우회부여지회, 자율방범연합회 부여지회, 엄마순찰대, 적십자사, 녹색어머니회, 다문화가정, 실버봉사단,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사회단체들이 행사 지원에 나서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부여군관계자는 “이번 연꽃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많은 불편 속에서 적극 협조하여 준 군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며 “올해 부족한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 내년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100만 명이 연꽃축제에 다녀가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면서 “천만송이 연꽃처럼 내년에는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 경제의 견인축제로서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계룡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저렴한 발급비용과 안전성 장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인감증명서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

만 관광서를 제외한 은행이나 개인간의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되지 않고 있어 실제 인감증명 발급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4%로 크게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사전 등록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명 어디든 신분증을 제출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비용은 통당 300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인 600원에 비해 저렴하고, 인감도장 분실의 염려가 없으며 대리발급 불가

등 본인 발급만 가능해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본 제도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등에 홍보리플렛을 발송해 각종 구비서류 안내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7월 8일, 9일, 15일, 16일 총 4회에 걸쳐 5-7세 유아자녀와 부모,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참석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원에교육을 운영했다.

이번교육은 도시농업 소개, ‘생활원에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벽면녹화 화분만들기, 스토리카드 만들기 실습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화하고 교감하며 아이들에게는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에게는 가정에서 식물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화분을 꾸며보고 식물을 심어 재미있고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법에 대한 정보로 얻게 되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초등학생 아이는 엄마와 식물을 심어서 행복하고 집에 가서 물을 주고 예쁘게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2015년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원에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서천군 보건소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성가치관 정립교육



서천군 보건소(김재연)에서는 청소년 성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관

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서면여자중학교 등 10개 학교에서 11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가치관 정립교육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지식 전달 및 바람직한 성 의식과 성 태도를 길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정착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며 계획임신을 통해 모성건강 및 건강한 출산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성적 존재로서의 나를 깨닫게 하고

자연스러운 성 태도와 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게 하고 정확한 성 발달과정을 통한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능력을 키움으로써 성적 위험원치 않는 성관계, 임신, 성병, 성폭력, 성매매 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주요 교육 목표로 했다.

김명진 모자보건팀장은 “서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사와 이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JDSBOOKS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11회의 청소년 성가치관 정립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자아존중감을 높여 서천군의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커나갈도록 힘을 예성”이라고 밝혔다.

서천=김태선 기자

###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 회복하세요

논산시 어르신행복상담센터, 행복가득어르신 힐링캠프 열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 지난 14일 양촌자연휴양림에서 올해 두 번째로 ‘행복가득 어르신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행복가득 어르신 힐링캠프는 어르신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을 찾아주고 감동, 우울, 불안, 고독 등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 집단으로 나누어 자신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레

크레이션, 산책, 명상 등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자연 속 바람과 기운을 만끽하며 우리고장의 아름다움을 여유롭게 체험하고, 또래 어르신과의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에너지를 얻으며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논산시 김연안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및 우울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통정

MOU 체결식



황명선 논산시장은 18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중앙백신연구소와 MOU 체결식에 참석.

특별교육



노백래 서천군수=18일 오전 11시 교육청에서 열리는 서천교육발전 범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읍면 복지허브화 활성화 특별교육에 참석.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회



이용우 부여군수=18일 오전 9시 부여군 브리핑실에서 열리는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회에 참석.

“가족과 함께 생활원에 배워 즐거워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생활원에교육추진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가 유아와 초등학생, 부모가 참여하는 생활원에교육을 마련해 호응속에 진행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7월 8일, 9일, 15일, 16일 총 4회에 걸쳐 5-7세 유아자녀와 부모,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참석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원에교육을 운영했다.

이번교육은 도시농업 소개, ‘생활원에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벽면녹화 화분만들기, 스토리카드 만들기 실습을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여 대화하고 교감하며 아이들에게는 식물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에게는 가정에서 식물을 심고 가꾸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화분을 꾸며보고 식물을 심어 재미있고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법에 대한 정보로 얻게 되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초등학생 아이는 엄마와 식물을 심어서 행복하고 집에 가서 물을 주고 예쁘게 키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2015년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원에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4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계룡시 ‘물놀이장’ 개장준비완료

두계천 생태공원내...오는 23일부터 개장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두계천 생태대하천공원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시는 올해 지하수와 함께 상수도병행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체험환경 조성과 더불어 샤워장,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두계천 물놀이장은 지난 2013년 개장이후 매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 물놀이장으로 지난해에는 1만명 이상이 여름 피서를 즐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또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물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주변 자연과 함께 도심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놀이장 이용은 계룡시 어린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여야 한다. 시는 수영모 착용 및 자유의사와 물놀이 안전수칙 등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면 시원한 피서를 관내에서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놀이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단, 우천시 또는 평균온도 급변 시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이용을 일시 중지한다.



통정

주간업무보고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 18일 오전 8시 40분 중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를 주제하고, 오후 3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

주간 현안사항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18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사항 보고, 오후 6시 30분 웨스토피아CC에서 열리는 제4회 비바보령 아마추어 골프대회, 오후 8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열리는 충남국악단 초청공연 참석.

제주도 탐나라공화국 방문



이완섭 서산시장은 18일 제주도 창조관광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탐나라 공화국을 방문.

금강여울축제 행사장 현장행정



박동철 금산군수는 18일 오후 2시 부리면 평촌리 금강여울축제 행사장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시.

전국교육장 하계연수회



박도순 보령교육장은 14~15일 충남 롯데 부어리조트에서 진행되는 2016년 전국교육장 하계연수회에 참석.

서산시 국제여객선 취항 준비착착

중국관광객 유치 TF팀 사업추진 보고회 개최... 10개부서 주무팀장 40명 참여

서산시가 내년 대산항과 중국 룡청시 통연항간 국제여객선의 취항을 앞두고 대거 유입이 예상되는 중국관광객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하다.

시는 15일 10개 부서의 실과장 및 주무팀장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TF팀 보고회를 개최했다.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제여객선 취항식 계획, 관광객유치 대책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합작법인 설립 및 선박 확보 방안과 세관·출입국관리·검역 관계기관 입주 등의 국제여객선 취항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관광, 숙박, 식당, 교통, 농산물 등의 분야별 추진사항은 물론 SNS기반 조형 캠페인이 재미있고, 간월읍, 버드랜드 등의 대표 관광지들에 대한 로드맵과 예산확보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 SNS기반 조형 캠페인이 재미있고, 간월읍, 버드랜드 등의 대표 관광지를 중국 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울러 그간 대형 숙박시설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니키아 호텔이 10월에 계획대로 완공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농특산물 대중국 신규 수출시장 개척 ▲동부시장 내 중국 관광객 판매시스템 구축 ▲대형쇼핑센터 및 면세점 유치 ▲서산 대산항 시내버스 노선개통 ▲관련 종사자 중국어교육 통한 서비스 개선 ▲관광 안내 표지판 중국어 병행 표기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시는 숙박,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관광도시 서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산=김정현기자

보령시티투어로 관광의 재미·특별함 더하다

8월말까지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동행으로 관광지 이해 높여



보령시가 여름 성수기 동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재미는 물론,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15일부터 8월말까지 '글로벌 머드축제'의 도시 보령을 한눈에' 라는 주제로 관광보령 맞춤형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보령시티투어는 '가족힐링 체험 1·2코스'와 '역사힐링 체험코스' 등 3개 코스로 운영하며, 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하루 동안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저렴하고 알차게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이용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역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을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요금은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5000원, 소인15세 이상 19세 이하는 4000원이며, 입장료

및 체험료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되지 시설별 20~3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

시티투어 버스 운행은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 코스별 관광지를 거쳐 오후 7시에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으로 '가족힐링 체험 1코스'는 병풍욕장(청라)~레이바이크(명천동)~개화예술공원(성주), '가족힐링 체험 2코스'는 죽도 상화원(남포)~스카이라이프 및 질트랙(해수욕장)~수산시장, '역사힐링 체험코스'는 충정수영성(오천)~성주사지 및 석탄박물관(성주)으로 구성했다.

예약은 인터넷(보령시티투어 홈페이지) 또는 전화(대천관광협회, ☎041-933-7051)로 할 수 있으며, 이용하기 전날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출발 10분 이전에 문의 후 이용할 수 있으나, 출발 전일 기준 10인 미만시에는 운영을 취소한다.

보령=김태성기자

공주시민대학전문특성화과정 수료식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컨벤션홀에서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 제2기 지역혁신리더과정 및 시민문화선도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수료생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수료를 마친 수강생들을 축하했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은 올해 제2기 지역혁신리더과정 및 시민문화선도과정에 각각 45명씩 90명의 입학생이 지난 3월 24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7월 7일까지 지역리더로서의 역할과 임무, 행복한 공주민들 등 다양한 전문특성화 과정 수업을 통해 7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관내 역사문화유적지, 경주시 일원, 서울 경복궁, 사적지, 이상옥가족, 서촌, 북촌한옥마을 등 문화관광해설사를 동반한 3회의 걸친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은 백제문화와 비교를 통해 공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자치활동과 학사운영에 공이 큰 이낙영(신관동), 이재희(신관동), 양윤배(신관동), 임훈구(신관동) 수료생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모든 과정을 성실이 이수한 9명에게 개근상을 수여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시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하반기 제3기생은 8월초에 서 중순까지 공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 모집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농촌고령자 공동생활관 준공식

공동생활 통한 외로움·불안감 해소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15일 사곡면 운암2리에 서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고령자 공동생활관 준공식을 가졌다.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공동생활관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지어졌으며,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들여 건물 면적 6888㎡의 규모에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농촌고령자 공동생활관은 시의 행복실현 맞춤형지원을 위한 실버공동생활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들의 외로움과 불안감 해소를 정서적인 측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경제·환경·안전 등의 측면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수 운암2리 이장은 "농촌고령자 공동생활관 준공을 위하여 불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공주시 오시덕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효율적인 활용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돌봄과 후식을 취할 수 있는 온정의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금산금강여울축제, 오는 30일 개최

여름방학 가족 피서로 제격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금강놀이마당 일원에서 금강여울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는 무더운 여름날 청량감 넘치는 시원한 '물' 체험이 강화됐다.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강변슬라이딩체험과 물풍랑, 대형오리튜브체험, 금강족욕체험, 가족물총싸움 등 여름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물' 체험이 마련된다.

여기에 경운기를 타고 떠나는 농작물 수확체험과 봉송아들놀이, 여치잡민들거 등 시골농촌체험이 더해져 '물' 체험과 다른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날이 어두워지면 금산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농바우그시기, 물레기놀이 등의 전통민속공연과 열대야 음악회 등이 개최돼 한여름밤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축제장 인근 수동리, 용화리에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어 하계 휴가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겨볼 수 있다.

금강여울축제는 금산만의 독특한 여름문화컨텐츠로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강촌마을의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여름 '물' 체험축제로 전국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금산=손광우기자

서산시 재난역량강화 특별 교육 실시

서산시가 공무원과 ▲엘지화재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KCC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재난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시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금산군 화학공장 불산누출사고 등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사고대응 사례 등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해 사고발생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2012년에 경북 구미시에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직접 담당했

던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대기보전계장 김동진 계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화학재난 상황의 재난대응 및 수습과정과 거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공유해 재난현장 골드타임 확보 및 현장안전관리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초·중·고생 안전체험

캠프 운영 등 시민들에게 올바른 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는 안전하고 재난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고 실천과 더불어 현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현기자

현대식 전통 가옥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장점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더하다.

1 친환경적이다 (Eco-Friendly)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적인 황토 벽돌과 나무골조를 사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느낌과,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황토가 가지고 있는 수익 마리의 미생물이 인체에서 나오는 독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건강 관리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3 전통적인 아름다움 (Traditional)

한옥은 기둥 위에 '도리'라는 부재를 올리고, 그 위에 '서까래'라는 부재를 올려서 지붕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처마의 형태가 구조적 아름다움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기와의 전통성과, 구조체로 쓰인 나무와 황토의 색깔, 그리고 흙 내음이 우리나라 전통 향수와 아름다움을 풍깁니다.

2 난방비 절약 (Economizing)

흔히 말하는 황토 집 온돌방(황토방)이 바로 이 전통 가옥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때면 집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과, 구조적 특징으로 갖출 습도와 온도조절 기능 그리고 공기 청정기능으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추운 날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서양의 벽난로와 같이 과열되어 인화되는 위험성도 없고, 보일러나 벽난로같이 동파와 고장도 별로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랑이 오네요 (SBS오전 8시30분)



새 디자인실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하라와의 동업에 찬성하는 진호와 여진. 은혜는 민수에게 직원들과 의논해 만든 동업 조건서를 건네고 두 사람은 동업자가 된 기념으로 악수한다. 한편, 상호를 회장으로 불러 자료가 분실됐던 시간에 비상 CCTV가 켜져 있었다고 말하는 나 회장. 순간 상호의 얼굴은 창백해지는데..

▲내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00분)

연희(임채원은) 담보로 얻어낸 미성체과 제2공장을 이용해 일란(임지은)과 수창(정희태)을 압박

허려하고, 꽃님(나혜령)은 태왕건설로부터 납품 계약 체결을 받고 기뻐한다. 한편 연화당의 계약 소식을 들은 일란과 수창은 연화당을 곤경에 빠뜨려 납품을 방해하려 하고, 연이어 터진 악재에 의아함을 느낀 강욱(이창욱)은 김새를 채고 수창을 찾아 가는데...

▲몬스터 (MBC 오후 10시00분)



일재(정보석)는 장인어른인 재만(이덕화)에게 한 번만 더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재만, 기탄(강지환)의 출현에 불안한 기석이 역력하다. 기탄은 이 기세를 몰아 변일재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케이블 명화

▲순수의 시대 (OCN 오후 11시00분)

붉은 피 속에 태어난 새로운 왕국. 조선의 주인은 누구인가?

1398년, 태조 이성계는 제 손에 피를 묻혀 개국을 일군 왕자이방원(장혁)이 아닌 어린 막내 아들을 정도전의 비호 하에 세자로 책봉하고, 왕자와 권력을 둘러싼 핏빛 싸움이 예고된다. 한편, 정도전의 사위이자 태조의 사위 진강하늘을 아들로 둔 장군 김민재(신하균)는 북의 여진족과 남의 왜구로부터 끊임없이 위태로운 조선의 국경선을 지켜낸 공로로 군 총사령관이 된다.

'왕자와 권력을 향한 야망의 조선, 그 뒤에 숨은 순수의 시대'

왕이 될 수 없었던 왕자이방원, 여진족 어미소생으로 정도전의 개로 불린 민재와 그의 친자가 아니라는 비밀 속에 패권을 쫓는 부마진. 민재는 어미를 낳은 모습의 그녀가 회개한 나에게서 난생 처음 지키고 싶은 제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의 최초의 반역, 야망의 시대를 거스르는 그의 순수는 난세의 한 가운데 선 세남자와 막 태어난 왕국 조선의 운명을 바꿀 피바람을 불러온다.



▲코요태어글리(채널CGV 오후 5시10분)

21살의 바이올렛(Violet 'Jasey' Sanford: 피아퍼 페라보)은 빼어난 미모만큼이나 목소리가 아름답다. 그녀의 꿈은, 송라이터가 되는 것.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떠난 바이올렛은 자신이 만든 곡을 듣고 음반사를 찾는다. 그러나 음반사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용기를 잃어갈 무렵 바이올렛은 여러 명의 미녀들이 바텐더로 일하는 코요태 어글리단 이름의 바를 발견한다. 마련해 온 돈이 바닥나고 앞날이 막막해진 바이올렛은 일자리를 찾아 코요태 어글리를 찾는다. 코요태 어글리의 주인 릴(나) 마리아 벨로 분은 바이올렛에게 오디션 기회를 준다. 그러나 바텐더 경험 없는 바이올렛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실수를 연발한다. 노련한 바텐더 캐미(Camrie 이자벨라) 마이코 분과 레이첼(Rachel: 브리짓 모나한) 분의 현란한 쇼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린 바이올렛은 코요태 어글리를 떠나려 한다. 그러나 싸움에 휘말린 취객을 노련하게 다루는 바이올렛의 솜씨에 감탄한 릴은 바이올렛에게 바텐더 일자리를 맡긴다. 송라이터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바이올렛은 자신이 만든 노래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난다.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개최

어린이 관람객 대상으로 『창의체험 과학교실』 진행



아산시는 청소년들의 체험 학습 기회 확대 및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150억원이 투입되어 전면적 4953㎡,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2011년 건립된 장영실 과학관(관장 이상욱)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17일(일)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창의체험 과학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 5주년 기념행사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총 6개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역대급 캐스팅 화제

이용가능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과학관 1층 과학공작실에서 프로그램별 3회씩 진행되며 시작 20분전부터 접수 가능하다. 선착순 접수를 통해 LED방향제, 열쇠고리, 식물 기습기, 립션, VR체험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장영실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1500여명에게 기념 볼펜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상욱 관장은 "과학관에 대한 아산시민 및 국민들의 관심이 힘입어 관람객 100만명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성원에 보답하고자 100만 번째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마침내 '월계수 양복점'의 배사나이가 완전체로 뭉쳤다! 배우 이동건과 차인표에 이어 최원영과 현우가 KBS2 새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승선한다.

MG새마을금고, 리우올림픽 출전 배드민턴 선수들 격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남자단식 이동건 선수·여자단식 성지현 선수 만나서 격려



지난 14일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MG새마을금고 배드민턴단 소속 남자단식 이동건 선수와 여자단식 성지현 선수를 심사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종백 회장은 MG새마을금고 배드민턴단 소속 남자단식 이동건 선수와 여자단식 성지현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격려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길 기원하기도 말했다. 또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부상 없이 매 경기마다 피어플레이를 펼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임을 강조했다. 송병배기자

서산 여자중, 한화회장배 단체전·개인전 금빛 총성



서산 여자중(교장 이종렬)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빛 총성을 울렸다. 단체전에서 오정은(3학년), 이나은(2학년), 이소은(2학년), 김예슬(1학년)선수는 우승을, 개인전에서 김예슬(1학년), 이소은(2학년)선수는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며 서산여자중학교 사격부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서산여자중 사격부는 지난 5월 대통령경호실장기 전국사격대회를 시작으로 매 대회마다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케이블 & 위성방송

Table listing various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 schedules, including OCN, 채널 CGV, Mnet, SBS 스포츠, YTN, 한국경제TV, MBC 뮤직, and others.





**한밭대, 2016 행복금산품들의 날 참가** 한밭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김광주)은 14일 금산교육지원청과 충청권 산학협력중개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 행복금산 품들의 날(지역특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날)'에 참가했다.



**충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봉사활동 리더십 캠프 개최**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장기수) 활동진흥센터에서는 7월 15일부터 1박 2일간 소망공동체(충남 공주에서 도내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청소년봉사활동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공주시어머니회, 흥미진진 장미당수익금기탁** 공주시어머니회는 지난 13일 공주시를 방문해 '흥미진진 장미당'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 여름철에너지절약 캠페인** 새마을운동동구지회(지회장장찬규)는 동구협의회(회장정오영)와 동구부녀회(회장 신은옥) 회원 100여명은 지난 15일 동구중앙로 목척교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실시했다.



**신창면, 물품나눔행사 실시** 지난 14일, 면사무소에서 행복키움추진단 15명이 취약계층 100여명에게 물품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면사무소를 찾은 신창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아산시 기초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물품전달과 함께 다양한 복지사업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농수산대학 학생들, 청양 동막골에서 농촌봉사활동 펼쳐** 한국농수산대학 약토연구회 학생 20여명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목면본의2리 동막골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전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대전 제2거점 강사 워크숍'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법무부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제2거점운영기관센터장 나삼일 한국어 교육센터 주임교수(이 지난 15일 대학 해화문화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대전제2거점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학협력단(단장 정찬호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정찬호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하여 나삼일 센터장 및 교·강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교·강사의 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및 안내와 관리 상담에 대한 더 좋은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담당 교·강사들이 나서 연수사례 발표와 평가에 대한 발표 및 분위아가 진행되었으며 대조언어학을 통한 한국어 발음교육 분야의 권위자인 계명대학교 김선정 국제협력

이 한국문화를 존중하며 한국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대전제2거점운영기관은 지난 2012년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전 제 2거점 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해외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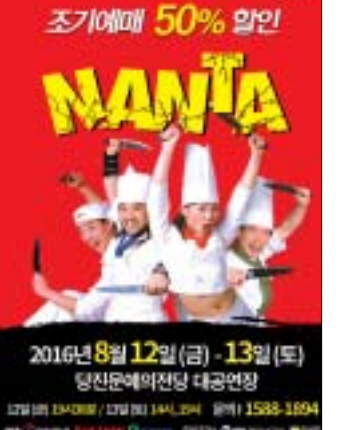
센터장을 맡고 있는 나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20일에는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세계인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정복기자

**● 동정 ●**  
**에너지절약절전캠페인**



한재득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은 18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베저리에서 새마을운동서구지회(회장 정상수) 회원 200여명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절전 캠페인을 전개.

**"송승환의 난타, 당신의 무더운 여름 두드리고 때려준다"**



배우 송승환의 효자상품 '난타'가 오는 8월 12일, 13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두번째로 공연된다.

난타는 17년 동안 세계 누적 관객 수가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공연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글로벌 효자상품이며, 또한 대사가 없는 넘버럴 퍼포먼스(비언어극)로 잘 알려져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렵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송승환의 난타(NANTA)는 오는 17일까지 대한민국민을 위한 50% 특별 할인을 진행하며, 또한 국가공유자 및 장애인 50% 복지할인, 20인 이상 단체할인을 상시 진행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 가능하다.

세계적 문화관광 도시와 세계적 효자상품이 만나 냉장고 속의 시원한 사이타처럼 더위에 지친 당신 시냇물의 담담한 가슴을 뽐내주는 만족스러운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타공연은 8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13일(토) 오후 2시, 7시 총 3회이며, 티켓 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과 함께 특별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예매는 인터파크, 기획사 전화예매(1588-1894)로 할 수 있으며, 예매문의와 함께 20인 이상 단체 및 휠체어 문의를 기획사(1588-1894)로 하면 된다. 당진=최근기자

**■ 부고** ▲정진성(대전시 교육청 공보관실 주무관) 씨 장모상, 원기순 씨 별세  
▷17일 오전 4시 40분  
▷충남서천군 정향읍참사랑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41-956-4440, 010-7686-1216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한국영성대학교, 2016 전문대학 엑스포에서**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선보여**

한국영성대학교(총장 유재원)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전문대학 EXPO'에서 뉴미디어 영상콘텐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다양한 체험거리 ▲드론 비행과 시뮬레이션체험 ▲홀로그램 시연 ▲VR영상체험 ▲구글카드보드 만들기 등으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무인비

행 교육원과 차세대영상콘텐츠랩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선도대학으로써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14일 전문대학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한 이영 교육부 차관과 주요 인사들은 한국영성대 부스를 찾아 대학에서 직접 제작한 홀로그램과 VR 영상을 체험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정성범기자



**충청우정청, 삼계탕 무료급식 봉사**

**"어르신, 울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지난 15일 대전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을 모시고 건강한 여름을 기원하는 삼계탕 무료급식 봉사를 실시했다.

조복을 앞두고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충청우정청 직원 15명이 참여해 200여 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20명에게는 도시락을 만들어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요

즘같이 어렵고 더운 때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 너무 고맙다"며 "앞으로도 무료급식 행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원들과 함께 봉사에 참여한 이승재 청장은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마다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어르신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과 복지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온양2동 온양성결교회, 어르신 300여명 초대**

**이웃사랑 '어르신 섬김 잔치' 개최**



아산시 온양2동 온양성결교회(목사 이재두)는 지난 14일,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300여명을 초대해 어르신 섬김 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 섬김 잔치는 온양성결교회 신도들이 어르신 공경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을 모아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김형관 온양2동장은 "우리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어른 섬김과 나눔 행사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행복하고 살기 좋은 온양2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어르신 섬김 잔치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리광주기자



**이름다운 동행으로 한국문화에 흠뻑 젖다**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희수) 사범대학(학장 박달원)은 해외교육봉사 운영 기관 구축을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캐나다 한국인 입양 가족 36명을 초청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유한식 상임감사 청렴특강** 지난 15일 유한식 상임감사가 방문해 지사 주요업무현황 및 청렴강의를 실시했다.



### 대투 논란



김헌대  
논설고문

대한민국 복지행정의 메카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이다. 국민복지를 위한 모든 행정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전문화된 복지예산을 이른바 주부르는 곳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행복지수가 이곳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중앙부처이다. 물론 아직 OECD국가 중에서 복지예산 차지 비중이 크게 떨어지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내어 소외 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전 국민적인 지원의 몸부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더 행복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들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이순간도 틈을 흘리며 온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혈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런 눈이 많이 질수록 국민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복지에 쓰여 지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셈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보건복지부는 늘 예산 타령이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복지 예산절감방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곧 국민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마디로 절약이라기보다 돈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행태행보를 하고 있다. 엉뚱한 곳에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에 예산 과다 증액결 및 민간보육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국민간이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열린 집회를 가졌다. 초상집을 방불케 하는 검정색 복귀기로 비장함을 엿보게 하였다.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정책'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이에 반발해 집단 휴원을 강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히 대처한다며 압박으로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권력 아부행 예산 절감책 복지 서비스 효율화를 내세우며 묘한 행각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누

### 보건복지부 왜 이러나

리과정 예산없이 무상보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노인수당인상 등 별의별 것들을 다 내세워 표를 달라고 나중에는 '아니다'라는 식이면 국민들은 과연 어찌하라는 말인가 불고 싶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나타났고 자치단체들의 예산대란 항변도 이어져 왔다. 교육청과의 갈등도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임기유연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러 무상보육의 추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금년도 보건복지 노동예산은 122조 9천 억 원으로 대한민국 386조 7천 억 원의 31.78%를 차지해 교육과 국방 예산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는 민간부문의 지 원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상당하다. 그런데도 늘 예산타령이고 절감타령이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허구한 날 국민행복지수는 쫓아오는데 국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돈을 갖다 어디다 쓰고 있기에 늘 이 지경인지 말 좀 해보아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일삼고 현장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감책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논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예산의 집행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자신들의 과포를 인정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그것은 곧 국민복지혜택을 줄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마디로 절약이라기보다 돈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 행태행보를 하고 있다. 엉뚱한 곳에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가관 행정의 백미는 정신질환자 차별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참으로 비인권적인 액자별도 정신질환자들의 고통을 정부가 배가시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임원료는 건강보험의 59%, 외래수가는 2770원, 한기 당 밥값은 3390원으로 건강보험 5천여원에 크게 떨어진다. 이래 놓고도 이들은 퇴원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이라는 것이 10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면 정액수가의 15%를 그러나 민간병원들이 이에 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

들은 퇴원시키려 하면 역으로 왜 퇴원시키느냐며 책임을 전가하는 편에 서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흥 쓰고 매화타령을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일반 의료급여환자들과 심하게 차별하고 있는데다 그러나 8년 동안이나 정신질환자 의료수가를 동결하고도 양이 차지 않아 갖은 못된 행정을 일삼고 있다. 지금 민간정신병원들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퇴원시키고 있다.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와중에도 벌이는 보건복지부의 묘한 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소위 서울대 인맥 행기라는 것이다. 서울대 분당병원 출신인 장관이 서울대 인맥을 총동원해 자리를 깔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공주정신병원, 국립정신보건센터(국립서울병원) 등등 곳곳에 자신의 인맥을 심어놓는 거 하면 심지어 예산까지 만들어 초조화한 국립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못할 처별행정과 묘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곳 역시 같은 대학 출신이다. 정신신보건법을 개정하면서 국립정신병원 임원직정정평가위원회 신규로 설치하고 심지어 178억 원이나 되는 정책예산도 편성해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 빙자한 자기를 밥그릇 행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누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누가 여기에 발을 담그는 지를 보면 더욱 명약관화하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수가는 8년 동안이나 동결하여 만성화 장기 입원화를 조래해 놓고 돈 없다고 하면서도 수천 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화판 국립정신건강연구센터를 건립해 돈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윤배반의 모순이 극치를 보인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정말 많은 의료급여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데도 말이다.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는가 불고 싶다. 국립정신병원의 모순된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립정신병원은 각종 기능보강과 신·증개축 비용 등에 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환자 1인당 진료예산이 민간병원의 2배 이상이다. 적자가 나면 또 국고지원 을 하고 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일례로 서울시립은평병원은 민간병원 예산의 3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적어도 민간병원의 두 배가 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를 초래하는 국립정신병원을 그대로 놔두고 민간병원을 초도화시키려는 복지부의 작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지난 2~3년간 국립정신병원의 환자 1인당 예산을 감사하여 환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파악해 민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들도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신질환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학원 등에 얽매인 자리 만들기 환인이 되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국립정신병원을 민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만한 운영은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 이에 성공한 일본과 같은 독립행정법인화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산절감을 논하는 복지부는 이에 답해야 한다.

복지부의 한심한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내놓은 데 이어 이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이나 설명회 등도 밀실어린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이 전국적인 예술 경연대회를 갖는 시간에 슬그머니 설명회를 갖고 졸속으로 해당 절차 만들기에 나섰다고 한다. 참으로 비겁한 행정의 일단을 보게 된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복지부가 법 개정단계에서 보인 듯한 행태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멍청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향후 큰 저항이 우려된다. 민간정신병원들의 퇴원 유도로 고통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양 어물쩍 넘어가려는 복지부의 비겁함이 도를 넘는다. 이를 보면 복지부 앞에서 데모를 하는 각 이익단체들의 뼈아픈 고통이 헤아려진다. 차제에 복지부의 전근대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예산누수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이 나와야 한다. 복지부가 개혁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민복지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장관부터 정신을 차리고 시중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학원에 얽힌 인사와 정책에 대한 해명도 함께 이를 과감히 탈피하는 노력과 진정성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 사설

### 만취자 '폭력' 관용 안 된다

만취자의 '묻지마폭력'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강력부장) 최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혐오범죄 근절을 위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특별 양형인자를 가중해 구형하고,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동기 없이 폭행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조범이라도 관계없이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기존 시행하던 '폭력사범 삼심아웃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기존 폭행·상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하던 것을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물건에 대한 폭력범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삼심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흉기 사용 범죄나 피해가 중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등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살인을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은 살인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시설 최장 수용기간 15년에 2년씩 3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21년 동안 수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자 치료정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강력범죄 근절 및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캠핑장 점검 필요한 시기가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이후 캠핑장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캠핑장이 소화기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우려가 크다.

최근 국민안전처가 전국 캠핑장 1663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진행한 결과, 등록된 캠핑장(1175개소)과 미등록 캠핑장(416개소)에서 41건의 안전미흡이 지적됐다. 휴·폐업한 캠핑장 72개소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화도 캠핑장 사고 이후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을 바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야영장을 등록시설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 야영장은 야영장 시설별소 소화기와 천막 방염처리 등의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미등록 캠핑장 416개소는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캠핑장 37곳은 모두 미등록 야영장이었다. 미등록 캠핑장이 105개나 있는 강원에서는 소화기 미비 캠핑장이 15개소나 됐다. 그 뒤를 △경남(4) △전남(4) △경북(4) △경기(3) △충남(3) △울산(1) △전북(1) △충북(1) △창원(1) 등이 이었다.

이와 함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도 5곳이나 됐다. 경북 고령힐링캠핑장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곳으로 소화기도 없었고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았다. 전남의 캠핑장은 등록된 캠핑장이었지만 도로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캠핑 전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춰지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선 음식물 조리 등 화기취급 시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미리 파악해 뒀어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소사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1981년 7월 18일 월요일
2015년 7월 18일 월요일	1971년 7월 18일 월요일
2014년 7월 18일 월요일	1961년 7월 18일 월요일
2013년 7월 18일 월요일	1951년 7월 18일 월요일
2012년 7월 18일 월요일	1941년 7월 18일 월요일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1931년 7월 18일 월요일
2010년 7월 18일 월요일	1921년 7월 18일 월요일
2009년 7월 18일 월요일	1911년 7월 18일 월요일
2008년 7월 18일 월요일	1901년 7월 18일 월요일
2007년 7월 18일 월요일	1891년 7월 18일 월요일
2006년 7월 18일 월요일	1881년 7월 18일 월요일
2005년 7월 18일 월요일	1871년 7월 18일 월요일
2004년 7월 18일 월요일	1861년 7월 18일 월요일
2003년 7월 18일 월요일	1851년 7월 18일 월요일
2002년 7월 18일 월요일	1841년 7월 18일 월요일
2001년 7월 18일 월요일	1831년 7월 18일 월요일
2000년 7월 18일 월요일	1821년 7월 18일 월요일
1999년 7월 18일 월요일	1811년 7월 18일 월요일
1998년 7월 18일 월요일	1801년 7월 18일 월요일
1997년 7월 18일 월요일	1791년 7월 18일 월요일
1996년 7월 18일 월요일	1781년 7월 18일 월요일
1995년 7월 18일 월요일	1771년 7월 18일 월요일
1994년 7월 18일 월요일	1761년 7월 18일 월요일
1993년 7월 18일 월요일	1751년 7월 18일 월요일
1992년 7월 18일 월요일	1741년 7월 18일 월요일
1991년 7월 18일 월요일	1731년 7월 18일 월요일
1990년 7월 18일 월요일	1721년 7월 18일 월요일
1989년 7월 18일 월요일	1711년 7월 18일 월요일
1988년 7월 18일 월요일	1701년 7월 18일 월요일
1987년 7월 18일 월요일	1691년 7월 18일 월요일
1986년 7월 18일 월요일	1681년 7월 18일 월요일
1985년 7월 18일 월요일	1671년 7월 18일 월요일
1984년 7월 18일 월요일	1661년 7월 18일 월요일
1983년 7월 18일 월요일	1651년 7월 18일 월요일
1982년 7월 18일 월요일	1641년 7월 18일 월요일
1981년 7월 18일 월요일	1631년 7월 18일 월요일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E-mail: d-mail@harmal.net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즈니스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주)중부인쇄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자 수첩



이영호  
행정국장

권선택 대전시장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트램을 공약 했으며, 지금은 대전하면 트램, 트램하면 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트램은 대전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국에 트램 도입에 불을 당긴 장본인이 됐다.

권 시장은 권선택 대전시장보다 트램권, 트램시장으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하며 각종 행사 때 견배사도 트램으로 할 정도로 트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트램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 속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트램을 공약한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등 대전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울산 등 6개 도시가 트

### 권시장의 남다른 트램 애정 트램권으로 불러주세요

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권시장이 국내 첫 도입을 시도한 트램이 전국 1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트램 도입을 계획·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트램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램의 최대 장점은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친환경, 친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는 1km당 200억 원 내외로 지하철의 약 1/6, 고가 경전철의 약 1/3의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일반 전철대비 40% 수준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지출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시는 1년에 자동차가 1만 2000여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1년에 1조 2000억원에 달하며, 2014년 기준 대중교통비 부담률도 28.6%로 승용차 이용률(56.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편으로 대중교통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시의 인구변화 추세를 보면 2030년에 교통약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로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며 트램은 도로에서 수평승하차 할 수 있어 정거장 접근 및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시는 본격적인 트램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시법노선으로 동부내거리에서 중리네거리와 법동, 동부여성가족원 2.7km를 연결하는 A라인과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과 상대동, 원골네거리를 잇는 2.4km B라인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을 결정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본노선)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끝내고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해 2025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원 4가에서 서대전역 4(L=5.0km) 구간은 충청관광철도와 2호선 시 서로 교통수요를 나누어 갖는 등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2가지 사업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증폭구간에 대한 사업시기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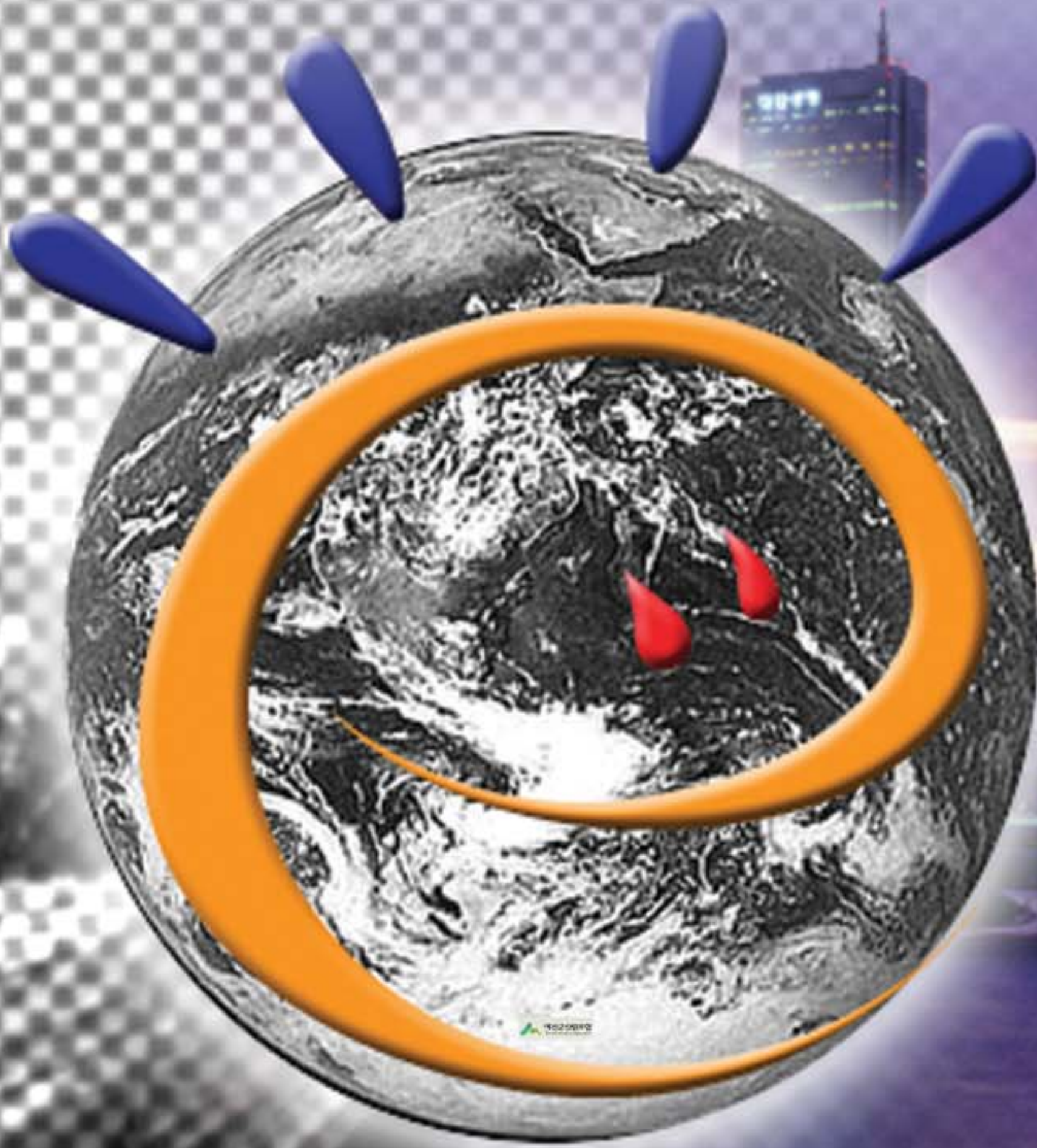
이에 권시장은 지역 주민들을 만

나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적극성을 보이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 등, 앞으로 중부구간을 노선변경 없이 추진하되, 광역철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에서 (2022년 개통)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을 정상추진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트램 추진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원료를 목표로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에 대해 개정 추진 중이며 현재 도시철도법은 정성호 의원 발의(6.13)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입법예고 6.15~6.24) 소관위에 서류중이며 지난 6월 28일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원욱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주관으로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령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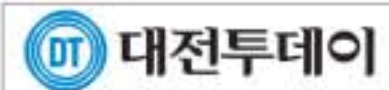
트램은 대전의 교통문제의 단순 해결을 넘어 도시의 기본 틀을 발전시켜 민선 67의 핵심 활력자 아이러니이며 전국에서 최초로 트램이 대전의 거리를 누비며 달릴 그 날을 기대해본다.





#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후 원 |

